

# 朝鮮後期 事大文書の 종류와 성격

김 경 록

- |                   |                  |
|-------------------|------------------|
| 1. 머리말            | 4. 朝鮮後期 事大文書の 특징 |
| 2. 事大文書の 종류와 형식   | 5. 맺음말           |
| 3. 事大文書の 작성과 전달과정 |                  |

## 1. 머리말

16~17세기 동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급격한 변화는 明清 왕조교체를 결과하였다. 내각제와 환관정치에 비정상적인 정치로 국가운영의 역량을 소진한 명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청에 의해 멸망하고,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거쳐 도요토미, 도쿠가와막부의 성립으로 전형적인 막부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조선 역시 인조반정으로 주자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봉당정 치시대로 접어들었다.

조선,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각국이 변화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국제 질서의 새로운 태동은 국내적인 파장을 가져왔으며, 이 시기의 역사적 변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면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었다. 국제체제에 대한 연구,<sup>1)</sup> 조명관계의 연구,<sup>2)</sup> 조청관계의 연구,<sup>3)</sup> 군사적인 측면의

---

1) 權善弘, 1999 『조선과 중국의 책봉·조공관계』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釜山 外大 國際關係研究叢書. 全海宗, 1966 『韓中 朝貢關係考 -韓中關係史의 鳥瞰을 위한 導論-』 『동양사학연구』1, 동양사학회. 安貞姬, 1997 『朝鮮初期의 事大論』 『歷史教育』64, 歷史教育研究會. 孫承喆, 1988 『朝鮮朝 事大交隣政策의 成立과 그 性格; 朝鮮朝 對外政策史 研究試論』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崔韶子, 1995 『淸

연구,<sup>4)</sup> 사회경제적 측면의 연구<sup>5)</sup> 등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sup>6)</sup>

- 과 朝鮮; 明・清交替期 동아시아의 國際 秩序에서, 『梨花史學研究』22, 梨花史學研究所
- 2) 高錫元, 1977 「麗末鮮初의 對明外交」, 『白山學報』제23호, 백산학회. 金九鎭, 1990 「朝鮮 前期 韓・中關係史의 試論; 朝鮮과 明의 使行과 그 性格에 대하여」, 『홍익사학』43. 金松姬, 1998 「조선초기 對明外交에 대한 一研究 -對明使臣과 明使臣 迎接官의 성격을 중심으로-」, 『史學研究』55・56, 韓國史學會. 金順子, 1999 「麗末鮮初 對元・對明關係 研究」, 『延世大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李相玉, 1969 「對明 學의 交流에 대한 一考察」, 『중국학보』10, 중국학회. 李存熙, 1978 「조선 前期의 對明書冊 貿易-輸入面을 中心으로-」, 『진단학보』44, 진단학회. 李鉉宗, 1973 「對明關係」, 『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1982 「對明貿易」, 『韓國史論』11, 국사편찬위원회. 朴南勳, 1982 「朝鮮初期의 對明貿易의 實際」, 『關東史學』제1집, 관동대. 박원호, 1983 「明 「靖難의 役」에 대한 조선의 對應」, 『아세아연구』2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全海宗, 1973 「15世紀 東亞情勢」, 『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曹永祿, 1990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考; 成宗朝의 對明交涉과 明使 鄭同」, 『국사관논총』14, 국사편찬위원회. 曹佐鎬, 1960 「李朝 對明 貢女考-韓國 女人 哀史의 一」, 『海園黃義敦先生 古稀記念史學論叢』. 池富一, 1997 「조선初의 對明 文化交流和 「性理大全」의 受容」, 『東洋學研究』3, 慶熙東洋學研究會. 韓明基, 1997 「宣祖代 후반~仁祖代 초반 對明關係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松浦章, 2002 『明清時代中國與朝鮮的交流: 朝鮮使節與着船』, 樂學書局
  - 3) 李泰鎮, 1994 「조선후기 對明義理論의 변천」, 『아시아문화』제10호, 翰林大 아시아文化研究所
  - 4) 金京郁, 1997 「조선 光海君代의 西・北防禦政策에 대하여: 光海君 卽位年-光海君 10年」, 『西江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金龍國, 1964 「壬辰倭亂 中 서울 收復戰과 防衛計劃(上), (下)」, 『향토서울』22, 23. 趙浚來, 1992 「明軍의 出兵과 壬亂 戰局의 推移」, 『한국사론』22, 국사편찬위원회. 許善道, 1982 「世宗朝 文化의 再認識-軍事・外交部門-」, 『世宗朝 文化의 再認識-報告論叢』8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沈隅俊, 1979 「金垵의 「朝京日錄」-특히 丙子胡亂時의 朝明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學』제21집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李敏雄, 2003 「朝・明 聯合艦隊의 形成과 露梁海戰 경과」, 『歷史學報』178, 歷史學會. 崔韶子, 2000 「임진왜란 전후 明과 朝鮮」,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西溟堂記念事業會』. 韓明基, 1997 「壬辰倭亂 시기 明軍 참전의 社會・文化的 영향」, 『軍史』35
  - 5) 金文植, 1994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 認識과 淸 文物 도입론」, 『奎章閣』17, 奎章閣
  - 6) 金廷美, 1996 「朝鮮後期 對淸貿易의 전개와 貿易收稅制의 시행」, 『韓國史論』36, 서울대 國史學科. 이철성, 2000 「조선후기대청무역사연구」(한국사연구총서13), 국학자료원. 金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연구」, 해안.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해안. 한국실학연구회, 1998 「대청실학사연구」, 민음사. 韓明基, 1992 「17세기 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15. 柳承宙, 1991 「朝鮮後期 朝・淸 貿易小考」, 『국사관논총』30, 국사편찬위원회. 최소자, 1987 『동서문화교류사연구』

원명교체로 인하여 전형적인 조공체제가 성립되었다면 이 시기는 전형적인 조공체제의 지속이라 할 것이다. 조공체제에서 국가간의 관계는 사행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국가간의 외교사안을 교섭하는 것은 형식상 불가능하였다. 이는 ‘臣子無外交’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형식상으로 외교사절에 의한 교섭이 불가능하더라도 실제 일정한 범위에서 교섭은 실행되었다. 그러나 실재하였던 외교사절의 교섭행위라 하더라도 외교문서 전달체계의 형식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외교문서를 매개체로 하여 자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상대국의 의사를 비교·검토하여 다시 외교문서의 형식을 빌려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공체제에서 외교문서, 즉 사대문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외교문서가 가지는 사료로서의 가치는 연대기자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외관계사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외교문서의 종류와 형태 및 전달절차 등에 대한 명확하고 內實있는 성과의 축적 없이는 대외관계사 연구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중국에서 조선에 전달된 詔書와 勅書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한국사 연구에서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개념에서는 동일하지만 조서와 칙서는 구체적으로 문서 등급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대외관계사의 기존 연구성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었지만, 정작 대외관계의 기초라 할 외교절차와 외교문서에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단적으로 예로, 일부 한일관계사에 관련한 國書와 書契의 연구가 있는데,<sup>7)</sup> 비하여 대중국관계 외교문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외교문서의 종류는 국내 고문서의 정리에 제외되어 있다.<sup>8)</sup> 청대 외교문서에 관련한 연구는 주로 奏摺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sup>9)</sup> 일본 역사학계는 일본의 외교문서에 대한 연구가

구: 명청시대 서학수용』, 삼영사

- 7) 柳在春, 1993 『朝鮮後期 韓・日國書 研究』, 『한일관계사연구』창간호. 이훈, 1993 『조선후기 違式書契를 통해서 본 朝・日交渉의 특질』, 『한일관계사연구』창간호. 張舜順, 1993 『朝鮮後期 日本の 書契 違式實態와 朝鮮의 對應』, 『한일관계사연구』창간호.
- 8) 崔承熙, 1989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 9) 宮崎市定, 1975 『清朝における國語問題の一面』, 『アジア史研究』3, 同朋舍. 季土家, 1984 『清代題奏制度沿革考釋』, 『歷史檔案』1984-3. 郭成康, 1998 『雍正密諭淺析-兼及

상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sup>10)</sup> 대중국관계 외교문서의 개념정의 및 구분, 외교문서의 생산, 전달, 형식, 외교용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대중국 대외관계사 연구의 저변이 되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연구가 실효를 거둘 것이다.

현재 조선시대의 외교문서로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등록형식의 모음집으로 남아있다. 『同文彙考』, 『事大文軌』,<sup>11)</sup> 『勅使謄錄』등이 대표적이다. 內治의 외적 표현이라 할 대외관계사는 국내 정치사에 한정되지 않고 대외관계의 주체인 다양한 국가의 역사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연구분야이다. 대외관계사의 기초적인 사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모든 사료가 해당됨은 물론이며, 외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인 외교문서가 그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외교문서 자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외교절차 및 외교 실무담당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조선시대의 외교문서를 事大文書로 한정하여 개관하고, 사대문서의 종류와 형식을 조선후기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대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용어에 대한 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미루도록 한다. 또한 사대문서의 작성과 전달과정을 조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조선후기 명칭교체로 인한 조청관계와 대청인식 등을 사대문서 상의 表箋式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軍機處設立的時間」, 『清史研究』1998-1

- 10) 中村榮孝, 1965 『室町時代の日鮮交通と書契及び文引』, 『日鮮關係史の研究』上. 田代和生, 1983 『書き替のえられた國書』, 中央公論社. 高橋公明, 1982 『外交文書』書‘咨’について』, 『年報中世史研究』7. 1982 『外交儀禮よりみた室町時代の日鮮關係』, 『史學雜誌』91-8. 田中健夫, 1990 『漢字文化權のなかの武家政權』, 『思想』976
- 11) 奎貴 3446-v1-23, 일사고 951.05-sa15-v1-24. 1619년(광해군 11)경에 찬집청에서 승문원등록 등을 바탕으로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 선조-광해군 즉위의 대명 외교문서집으로 형식은 『同文彙考』와 마찬가지로 등록형식으로 되어 있다. 奏·表·狀·詔·諭旨 뿐만 아니라 요동 또는 명의 兵部, 禮部 등과 주고받은 많은 수의 咨, 回咨 등을 수록하고 있다.

## 2. 事大文書의 종류와 형식

### 1) 事大文書의 구분

조선시대의 외교문서는 크게 事大文書와 交隣文書로 구분할 수 있고, 사대문서는 발급주체에 따라 朝鮮文書와 中國文書로 구분할 수 있다.<sup>12)</sup> 조선문서는 조선국왕이나 의정부 등 조선이 발급주체가 된 문서를 말하며, 중국문서의 경우도 중국이 발급주체가 된 문서를 통칭하기로 한다. 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집대성이라 할 『同文彙考』의 편집방식을 살펴보면, 조선문서와 중국문서를 아울러 사대문서로 인식하고 교린문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시하였다.<sup>13)</sup> 한편, 『典律通補』의 事大文書式에 수록된 문서식은 모두 조선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수시로 조선에 전달되는 表箋式을 참조하여 규례화한 것으로 중국문서에 관련해서는 조선에서 형식이나 내용에 관련한 규례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문서는 황제의 명의로 발행되는 문서 ‘制’, ‘詔’, ‘誥’, ‘勅’,<sup>14)</sup> ‘冊’, ‘祭文’, ‘祝文’, ‘諭’, ‘批’, ‘旨’ 등과 衙門명의로 ‘咨文’, ‘牌文’ 등이 있다.<sup>15)</sup> 이들 문서는 황제의 명령이나 관아의 명령을 기재한 것으로『雍正會典』에서는 정부 명령을 크게 詔, 勅, 諭, 旨, 定, 題准, 覆准, 議定, 議准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명령은 반드시 해당 문서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즉, 황제와 아문의 명령이 곧, 문서이며, 이들 중국의 문서 가운데 조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전달되었다.

12) 조선문서와 중국문서로 구분하는 것은 필자가 발급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同文彙考』에 사대문서와 교린문서가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사대문서의 경우, 조선에서 중국에 보낸 문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발급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朝中關係를 사대관계로 인식하였던 전통적인 개념을 차용하도록 한다.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문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조선문서와 중국문서로 본고에서는 試論의으로 정의한다.

13) 전해중, 1978 『同文彙考』, 국사편찬위원회편. 『同文彙考』의 각 항목별로 수록된 문서를 살펴보면, 외교적 사안에 따른 중국문서와 조선문서를 모두 수록하여 편집하였다.

14) 『大清會典』卷2, 內閣. “宣示百官曰制 布告天下曰詔 昭垂訓行曰誥 申明職守曰勅”

15) 張我德, 楊若荷, 裴燕生 編著, 1996 『清代文書』中國人民大學出版社. 1-2면.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가운데 조선에서 주로 접수하는 것은 制,<sup>16)</sup> 詔, 誥, 勅이다. 이들 皇命의 명확한 구분은 중국의 법전을 근거로 구분할 수 있지만, 청나라 말기로 가면서 명확한 구분없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대로 한 정하여 살펴보면, 『雍正會典』의 凡論에 황제가 頒降하는 명령으로 단지 詔와 勅만 기재하였으나, 『乾隆會典』권2에 制, 詔, 誥, 勅의 4종류가 기재되어 있다. 『乾隆會典』단계까지는 制, 詔, 誥, 勅을 명확히 구분하였지만, 이후 『嘉慶會典』에는 황제의 綸音을 내리는데 制, 詔, 誥, 勅으로 내린다고 하여 4종류의 명령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용례를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sup>17)</sup> 단지 附註에 백관에게 宣示함에는 ‘制辭’가 있으며, 政事에 관련하여 臣民에게 布告하는 경우에는 ‘詔’, ‘誥’를, 5품 이상의 관원에게 封贈하거나 世爵을 承襲하는 경우에는 ‘誥命’을, 6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하거나 세작을 승습하는 경우에는 ‘勅命’을 사용하였다.

청나라 말기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황제의 명령은 그 사용과 목적에 있어 制, 詔, 誥, 勅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制, 詔, 誥, 勅으로 황제의 명령을 구분하고 그 사용과 목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制’는 협의의 의미에서 큰 典禮에 있어 滿朝百官을 대상으로 宣示하는 것으로 일정한 문서형식이 없이 통칭 ‘制詞’ 등으로 불렸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로 보면, 황제가 내리는 모든 말을 ‘制’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制를 기재한 것을 ‘書’라 하였다. 制와 동일한 개념으로 ‘詔’, ‘赦’, ‘諭’, ‘勅’ 등의 종류가 있어 制가 이들 문서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sup>18)</sup> 또한, 형율을 밝힌 『大明律』, 『大清律』의 경우에도 황제가 정한 엄격한 法式이란 의미로 ‘制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교문서로서 ‘制’는 구체적인 형식이 없이 황제의 명령이라는 개념적인 의미로 파악할 수 있으며, ‘制’를 실제

16) 실제 制는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 일반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대 법전에는 制를 황제의 명령이자 문서로 인식하여 문서의 한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制를 황제의 명령 일반으로 파악하고, 制를 실제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외교문서로 구분한다.

17) 臨時臺灣舊慣調查會, 1914, 『清國行政法』汎論, 27면.

18) 『大清律例』卷7, 吏律 公式制書有違條. “天子之言曰制, 書則載其言者, 如詔赦諭勅之類”

문서형식으로 기재한 ‘詔’, ‘赦’, ‘諭’, ‘勅’이 실질적인 외교문서라 할 것이다.

② ‘詔’는 천하에 포고하는 것으로 대부분 황제가 사망하거나(‘遺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경우(‘即位詔書’), 또는 청년 황제가 親政하는 경우에 다스림의 大綱과 綱領을 밝히는 문서이다. 詔는 황후나 귀비 등을 책립하거나 존호를 올리는 경우에도 사용된다(‘頒詔’). ‘遺詔’는 황제가 사망한 뒤 執政大臣이나 새로 즉위하는 황제가 작성하여 반포하였는데, 각종 詔는 일반적으로 대소신료에 대한 恩典이나 형벌의 감면을 포함한다.

詔書는 황제의 명령으로 격식에 있어 가장 높은 단계라 할 것이며, 국가의 대사로 거행에 있어 융성하고 변화한 의식절차를 동반하였다. 조서는 天安門 앞에서 宣讀된 뒤 儀仗의 호위를 받아 禮部에 이르고, 예부에서 副本을 간행하였다. 이때 부본을 ‘眷黃’이라 한다. 부본은 내외아문으로 보내졌으며, 각 省에서 부본을 접수한 뒤 재차 부본을 간행하여 소속 아문으로 내려졌다. 조서의 정본은 흑필로 적혔으며, 해서체로 적는데 청대에는 滿漢合璧文字로 되어 있다. 즉, 우측에 만주어로 적고, 동일한 내용을 漢字로 좌측에 적었다. 卷首에는 “奉天承運皇帝詔曰”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結尾에는 “布告天下咸使聞知” 또는 “布告中外咸使聞知” 등의 문구로 되어 있다. 文尾에 연월일을 적고, 그 윗부분에 “皇帝之寶”를 印章한다.<sup>19)</sup>

외교문서로서 조서는 조선에 전달되었을 때, 예부의 부본을 접수하는 내외아문의 접수절차와 동일한 의식을 거쳤다.<sup>20)</sup> 영접도감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식절차를 거쳐 조서를 접수하였다. 보다 정치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져야 밝혀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조선사행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중국의 외교문서를 접수하여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가져오는 문서는 勅書가 대부분이며 詔書는 중국사신이 가져오는 경향성이 있다. 이는 조서가 칙서보다 높은 격의 문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③ ‘誥’는 5품이상 관원에게 작위를 내려주거나 임명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

19) 張我德, 楊若荷, 裴燕生, 1996, 위 책 3면.

20) 『攷事新書』卷7 行人門, 皇明進貢使价 皇明詔使迎接儀. “朝廷使臣則遣遠接使于義州 宣慰使于五處(竝二品以上) 迎送宴慰(都司隨使臣來則遣三品堂上官宣慰 赴京使臣還時 遼東護送官 亦宴慰) 到京設下馬宴翌日宴(王世子宗親府議政府六曹亦以次設宴) 及還設餞宴”



으로 誥의 일반적인 문서형식이 ‘誥命’이다. 큰 政事에 있어 臣民에게 포고하고, 彝憲을 垂示함에는 ‘詔’와 ‘誥’가 있는데, ‘詔’는 큰 정치적 의미의 전달이라면, ‘誥’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문서이다. 5품 이상의 관원을 恩封하거나 官爵을 承襲하는 경우에는 ‘誥命’이라는 문서를 頒給하였다. ‘誥命’은 조선의 대 중국 대외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접수해야 할 문서로서 국왕의 즉위에 따른 중국의 인정을 의미하는 문서이다. 국왕뿐만 아니라 왕비, 세자 등을 인정하는 고명은 한중관계에서 늘 외교적인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④ 勅은 勅諭, 勅命, 勅書로 구분되는데, 勅諭는 황제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특정 지역의 인민에게 내려주는 諭示를 말하고, 6품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는 勅命을 사용하였으며, 勅書는 중요 관원의 직책, 권한, 규정 등을 밝힌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황제의 명령으로 ‘諭’와 ‘旨’가 있는데, 외교문서에서 ‘諭’와 ‘旨’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문서의 내용에 기재된 문서전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諭’는 특정한 주청사항에 대해 황제가 中外에 宣示하는 것이며, ‘旨’는 주청한 바 그 해당 인물이나 대상에 한정하여 황제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旨’라 한다.<sup>21)</sup> ‘諭’와 ‘旨’는 황제에 관련되었다 하여 일반적으로 ‘聖諭’, ‘聖旨’라 하며, 황제의 뜻을 의미하는 말로 ‘諭旨’라 하기도 한다.

조선에 황제의 뜻을 밝힌 문서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지 사행이 북경에서 예부나 내각에서 받은 ‘諭’, ‘旨’를 베껴 온 경우가 있다. 『동문회고』에 수록된 외교문서 가운데 많은 숫자의 문서가 “禮部知會…”로 되어 있다. 이는 예부에서 조선사신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조선사행이 북경에서 체류하는 동안 예부, 회동관 등지에서 청 관원으로부터 문서를 보고 필사하여 가져오는 경우와 요동도사를 통하여 베껴오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문서는 ‘表文’, ‘箋文’, ‘狀文’, ‘咨文’, ‘奏文’, ‘啓文’, ‘申文’, ‘呈文’, ‘單子’

21) 『嘉慶會典』卷3, 附註. “特降者爲諭 因所奏請而降者爲旨 其或因所奏請而卽以宣示中外者亦爲諭”



등이 있는데, 문서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문서전달의 최종 대상을 고려한 구분이다. 『전률통보』에 따르면 사대문서는 23종, 교린문서는 2종이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典律通補』의 事大交隣文書 種類

區分	收錄 文字式	갯수
事大文字式	賀表, 方物表, 賀箋, 方物箋, 方物狀, 年貢奏本, 禮物摠單, 謝恩表, 進賀表, 陳慰表, 進香祭文, 祭物單子, 起居表, 告訃表, 告訃奏本, 奏請奏本, 方物奏本, 方物啓本, 方物單子, 咨文, 方物咨文, 申文, 呈文	23종
交隣文字式	國書, 書契	2종

\* 출처 : 『典律通補』別編

『동문회고』의 표전식은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典律通補』의 사대 문서식과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책의 편집방침에 있어서는 외교사안별로 구분하여 해당문서를 수록하였다. 이를 본고에서는 表文, 箋文, 狀文, 咨文, 奏文, 啓文, 申文, 呈文, 單子로 구분하고 해당 문서별 성격을 정리한다.

① 表文 : 표문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통칭하는 것으로 藩國王으로써 節日 등에 황제에게 필수적으로 올려야 했던 문서이다. 청대 황제에게 上達되는 封章 가운데 황제와 황태후에게 慶賀하여 올리는 문서는 表라 하였으며, 황후는 箋이라 하였다. 이외에 사안을 陳情하는 경우는 疏라 하였다.<sup>22)</sup> 표문의 형식에 관련해서는 『大明會典』에 규식이 있어 이를 청대에도 준용되었다. 표문과 전문은 가장 형식적인 면이 강조되는 문서로 대체로 駢儷體로 작성되었으며,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違式문제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위식문제는 조선건국 초기에 정도전이 작성한 표전문에 避諱해야 할 단어를 사용하였던 표전문사건이었으며, 조선후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선의 외교적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1396년(태조 5) 명 태조 홍무제는 표전

22) 『大清會典』卷2, 內閣. “中外封章上達 慶賀皇帝皇太后曰表 皇后曰箋 陳事曰疏”

문의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를 설정하여 표전문을 올리도록 하였다.<sup>23)</sup> 이후 표문과 전문의 제작 및 진상은 일정한 규범을 가지게 되어 恒式化되었다.

② 箋文 : 황태자와 황후에게 올리는 글을 통칭하는 것으로 誕辰, 元旦, 冬至 등 節日 등에 올렸다.<sup>24)</sup> 대부분이 표문과 함께 보내지만, 춘추절에는 전문만 보내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청에 문서를 보내면서 황태자와 황후는 구분하여 황태자에게는 전문을 사용하고, 황후에게는 장문을 사용하였다. 표문과 마찬가지로 『大明會典』을 준용하였다. 청에 보낸 대부분의 전문과 장문은 方物箋과 方物狀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③ 狀文 : 청대 上行文의 일종으로 개인이 관부에 아뢰는 바가 있을 때 사용하였다. 조선에서 보내는 장문은 주로 황후나 황태후에게 방물을 올리는 경우로 方物狀과 같은 형태이다.

④ 咨文 : 청대 平行文의 일종으로 고급아문 사이에 사용하였다. 복경의 六部, 各院 사이에 사용되거나 各部院과 각 省의 總督, 巡撫, 都統, 將軍 사이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선의 조정이나 의주 등의 지방관아에서 해당되는 청 관아에 보내기도 하였다. 주요한 외교적 사안을 처리하던 일반적인 문서형태였다. 발급주체는 조선국왕이 대부분이지만, 의주부사가 발급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서 설명할 申文과 呈文도 실제 咨文의 한 형태이며, 그 회답하는 咨文에서는 箭付를 通用하였다. 『大清會典』에서는, “모든 總督·巡撫·提督 등의 관원이 마음대로 스스로 外國에 移文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다.<sup>25)</sup> 즉, 조선과의 외교에 관련한 모든 문서행위는 예부로 일원화되었으며, 예부도 황제의 명의로 모든 문서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외교문서의 성격은 자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자문은 독자적인 문서의 성격도 있지만, 다른 문서의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었다. 모든 表文·奏文·狀文·箋文은 모두 咨文을 갖추도록 되어

23) 『皇明典禮志』表箋式. “洪武二十九年秋七月 頒表箋文式於天下 先是天下諸司所進表箋詞體駢麗 上之明翰林院學士劉三吾 右春坊右贊善王俊華 撰慶賀謝恩表箋成式 頒于天下諸司 凡遇慶賀謝恩如式錄進”

24) 李鵬年, 柳子揚, 陳鏞儀 編, 1990 『清代六部成語辭典』天津人民出版社. 210면.

25) 『通文館志』卷3, 事大 咨文. “衙門文移則 政府以下用申稱中稟 非衙門則用呈稱呈稟 其回文通用箭付 會典凡督撫提督等官 不許擅自移文外國”

있었다. 會同館의 提督은 조선 사행이 회동관에 도착한 다음 날 사신이 가지고 간 咨文을 受領하여 禮部에 가서 바치는데, 堂公들이 같이 開拆하여 열람한 다음에 儀制司에 돌려주어 題目을 갖추게 하였다.<sup>26)</sup>

⑤ 奏文 : 청대에 奏摺이라 표현되는 문서형식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황제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문서였다. 조선의 모든 외교적 사안은 奏文의 형식으로 청에 전달되었다. 조선에서 중국에 외교사안에 대해 주문하는 내용은 발급주체는 조선국왕이다.

⑥ 啓文 : 황태자에게 올리는 문서였는데, 실제 조선에서 청에 전달된 경우는 거의 없다. 명청시대 황제를 대신하여 황태자가 국정을 담당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며, 황제를 제외하면 황태자도 황제에게 일개 신하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조선에서 황태자에게 계문을 전달하는 경우는 황태자가 국정을 관장해야 했다.

⑦ 申文 : 조선의 의정부 대신 명의로 청 아문에 발급하는 문서로 평행문의 일종이다. 성격은 자문과 동일하지만, 발급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⑧ 呈文 : 청에 파견된 사신이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청 아문에 전달하는 문서이다. 평행문의 일종으로 자문과 성격이 동일하다. 衙門에서 咨文을 보낼 때에는 議政府 이하는 申字를 써서 ‘申稟’이라 하고, 衙門이 아닐 때에는 呈字를 써서 ‘呈稟’이라 하였다. 즉, 조선사신은 북경에서 아문의 명의로 문서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呈文을 통해 사행업무를 수행하였다.

⑨ 單子 : 각종 방물이나 제물 등의 물목을 기재한 문서로 사행에 있어 방물은 필수적인 항목이었기에 단자를 제출하였다. 청대에는 방물이나 제물의 경우는 표, 진, 장 등의 문서에 물목을 기재하고, 종합하여 예물총단이란 문서로 제출하였다.

이들 문서는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며,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1646년(인조 24) 姜嬪獄事와 관련하여 청에 사건전말을 알리는 陳奏使로 李景奭이 파견되었다. 이경석이 전달하거나 받아

26) 『通文館志』卷3, 事大 咨文. “凡表奏狀箋皆具咨 會同館提督於至館次日 領使齋至部呈 堂公同拆 閱歸儀制司具題”

온 문서를 살펴보면 ‘陳討逆奏’, ‘回咨’, ‘右奏進呈’, ‘方物奏’, ‘右奏進呈咨’, ‘皇后方物單’, ‘右單進呈咨’, ‘禮物總單’<sup>27)</sup> 등이 있다. 奏文을 전달하면서 奏文을 올리는 경위를 알리는 呈文과 奏文의 내용을 요약한 咨文을 먼저 예부에 전달한 뒤 주문을 전달하였다. 또한 방물을 전달하는 단자와 단자를 전달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子문, 각종 예물의 總單 등을 전달하였다. 모든 문서에는 咨文이 첨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sup>28)</sup> 외교사안에 관련된 문서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事大文書の 형식

대중국 외교문서의 형식을 본고에서는 『攷事新書』 ‘事大表箋式’, 『典律通補』 別編의 ‘事大文字式’, 『同文彙考』 補編의 ‘文書式’, 『通文館志』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대명관계 외교문서의 서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攷事撮要』의 ‘事大表箋狀式’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명, 대청관계의 외교문서는 형식면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일부 글자의 변화는 있지만, 청나라가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문서체계를 그대로 계승한 측면이 있어 형식의 변화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래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련해서는 『전율통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表文, 箋文, 狀文, 咨文, 奏文, 啓文, 申文, 呈文, 單子의 형식을 살펴보면, 문서의 연월일은 모두 갖추어 적되 ‘一’자는 ‘壹’의 유형으로 적었다. 나머지 물목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중국의 문서 가운데 황제에게 올리는 奏御文의 글자는 4행이 있으며, 제4행은 平行이고, 한 줄에서 한 글자를 一行으로 계산하였다. 奏本과 咨文, 進香文은 한 글자를 건너 뛰어 1행으로 하였다. 매 문서에서 연이어 붙이는 곳 및 종이를 봉한 곳 위에 “삼가 표문을 올립니다.”라는 글씨를 적고 인신을 찍었다.<sup>29)</sup>

27) 『同文彙考』卷33, 原編 陳奏.

28) 조선정부가 외교사안에 대해 문서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咨文이 첨부하였지만, 북경에서 사신이 외교업무 처리과정에서 별도의 문서를 첨부하거나 회신해야 할 경우에는 衙門의 명의로 문서작성이 불가능하여 呈文을 작성하였다.

29) 『典律通補』別編, 事大文字式. “事大文書式參用館志及時行黑草 正朝冬至聖節 節日

문서는 정본과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정본은 모두 御寶를 踏印하고, 末端의 年・月과 皮封한 面에 踏印하였다. 副本은 年・월과 衣面에 踏印하는데, 奏本은 副本과 같이 하였다. 咨文은 다만 年・월의 왼쪽 옆에 踏印하고, 咨자의 아래에 踏印하고, 御押에 踏印하였다. 모든 문서에서 張을 연달아 붙이는 곳에는 御寶를 踏印하고, 종이를 封하는 위에도 御寶를 踏印하였다. 본문에 “皇帝陛下”라는 글자는 黃綾籤에 쓰고, “中宮殿下”와 “皇太子殿下”라는 글자는 紅綾籤을 하였다.<sup>30)</sup>

표문의 경우, 尾辭 가운데 “無任” 두 글자는 康熙帝 이후로 “仰聖” 아래에 옮겨 적었으며, 冬至表의 경우, 강희이후에 표문의 首尾에 있는 “稽首稽首”는 “稽首頓首”로, “激切屏營”은 “歡忭”으로 고쳐 적었다. 이러한 변화는 三絶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sup>31)</sup>

외교문서의 형식에 관련하여 1705년(숙종 31)에 清朝 禮部에서 조선의 외교문서가 형식상 문제가 많다고 질책하였던 咨文을 통하여 형식상의 문제가 외교사안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慶賀하는 表文・箋文은 모두 정해진 법식이 있음을 頒布하였는데, 오직 朝鮮國만이 매년 文辭를 다시 바꾸기 때문에, 字句의 行間에 법식에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 금후로는 內閣에서 纂定한, 여러 王과 大臣, 각 省의 總督・巡撫가 올리는 표문・전문의 법식에 의거함으로써 繁文을 줄이도록 하시오.”<sup>32)</sup>

表箋長短句有定本 而其餘隨事別撰 文書年月日皆具 書如一字書壹之類 物目同 大國奏御文字四行(行即層) 第四行即平行 每一字爲一行 奏本咨文間一字爲一行(進香文同) 文書連幅處及封紙上(謹上表上) 安寶 表箋皆有正副本 狀則只有正本 正本長一尺六寸六分許(周尺) 每行二十一字(自極行計) 淡墨極細字皮封合襟處書朝鮮國王(臣)姓 (諱)謹(間一字) 上表箋則稱箋 狀則書謹封 皮封面安寶 副本作帖長一尺六寸六分廣六寸 帖無定數 每帖六行每行二十一字深墨小字黃廣的衣衣面付廣的籤書表副箋則書箋副副字安寶 表筒黃畫龍鑲粧(箋紅畫龍狀黃畫龍皇后紅畫) 袂納袱黃畫龍(箋狀同上)有納帶封紙前面合襟處書朝鮮國王(臣)姓 (諱)謹 上表(箋狀同上) 文書中本朝所上諡號並諱玄燁胤禩弘曆胡等字避”

30) 『通文館志』卷3, 事大 文書封進. 1692년(숙종 8)에 禮部의 咨文으로 인하여 “皇太子”라는 글자의 綾籤을 秋香色으로 바꾸었다.

31) 『同文彙考』原編 卷1, 封典 乙酉 謝冊封表. “康熙以後 表文尾辭中 無任二字 改置仰聖下”. 卷18, 節使 甲申冬至表. “康熙以後 表文首尾中 稽首稽首改以稽首頓首 激切屏營改以歡忭 三節表同”

32) 『通文館志』卷3, 事大 表箋狀奏咨. “康熙乙酉 禮部移咨 略曰慶賀表箋 俱頒有定式

위 예문을 통하여 형식상에 있어 자구의 行間법식을 조선에서 內閣 纂定の 법식에 어긋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각에서 찬정한 일반적인 법식이외에 매번 표전문을 올려야 할 경우에는 해당 올리는 표전문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오는 표전식이 있었다. 조선에서 내각 찬정의 법식과 매번 조선에 전달된 表箋式을 모두 반영하여 외교문서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 ① 表文

표문은 賀表, 方物表, 謝恩表, 進賀表, 陳慰表, 起居表, 告訃表 등의 종류가 있다. 정조, 동지, 성절 등 節日의 表文과 箋文의 長短句는 定本이 있지만, 나머지는 일에 따라서 별도로 찬술하였다. 표문은 엄격히 정해진 형식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朝鮮國王”은 평행으로, “表”, “賀” 등은 2행으로, “天”, “皇”, “聖” 등은 3행으로 적었다. “正旦”은 정조사가 전달하는 경우에 적었으며, 동지사는 “冬至”로, 성절사는 “萬壽聖節”을 적었다. 황제를 지칭하는 “皇”은 黃籤하였다. 年號 이하의 글자는 크기에 있어 본문과 다르게 작게 적었다. 연호의 연도 위에 “事大之寶”라는 인장을 찍었다. 위에서 예문으로 들은 賀表 이외에 방물표가 있다. 방물표를 작성하는 것은 正朝・冬至・聖節이며, 謝恩・進賀・問安使도 방물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본문에서 물목의 경우는 평행으로 적되 글자의 크기가 다소 작게 적었다. 구체적인 표문의 형식을 『典律通補』別編의 ‘事大文字式’에 기재된 형식을 바탕으로 표시하면 아래의 형식과 같다.

---

惟朝鮮國 每歲更換文辭 故字句之間 有不盡協合者 今後依內閣纂定 諸王大臣各省 督撫 表箋成式 以省繁文云”

(예문 1. 賀表)

朝鮮國王(臣)姓 (諱)  
欽遇年號幾年某月某日  
正旦令節謹奉  
表稱  
賀者(臣諱)誠懼誠忭稽首稽首  
上  
賀伏以  
恭惟  
皇帝陛下(臣)伏願(臣)無任瞻  
天仰  
聖歡忭之至謹奉  
表稱  
賀以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表

(예문 2. 方物表)

朝鮮國王(臣)姓 (諱)  
右伏以  
謹備  
(物目)  
右件物等(臣)無任兢惶激切之至謹隨  
表奉進以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表



(예문 3. 謝恩表)

朝鮮國王(臣)姓 (諱)  
言年號幾年某月某日(臣)欽蒙  
皇上特遣正使某官某副使某官某等官云云(臣)與一國臣民不勝感激謹奉  
表稱  
謝者臣諱誠惶誠恐稽首稽首  
伏以臣瞻  
天仰  
聖無任激切屏營之至謹奉  
表稱  
謝以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表

(예문 4. 進賀表)

朝鮮國王(臣)姓 (諱)  
言年號幾年某月某日(臣)欽奉  
詔旨節該云云(臣)欽依開讀訖與一國臣民不勝慶忭謹奉  
表稱  
賀者(臣諱)誠懼誠忭稽首頓首  
上  
賀伏以(臣)無任瞻  
天仰  
聖懼忭之至謹奉  
表稱  
賀以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表

(예문 5. 陳慰表)

朝鮮國王(臣)姓 (諱)  
言年號幾年某月某日  
勅使齋捧到  
大行皇帝  
遣詔布告欽此(臣)與一國臣民不勝驚慟欽依舉  
哀喪服等項禮式遵行外謹奉  
表稱  
慰者(臣)諱誠惶誠恐稽首稽首  
伏以云云(臣)無任望  
天仰  
聖哀憫屏營之至謹奉  
表稱  
慰以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表

(예문 6. 起居表)

朝鮮國王(臣)姓 (諱)  
言年號幾年某月某日承准  
禮部咨伏聞云云臣與一國臣民不勝瞻望欣聳謹奉  
表  
起居者(臣)諱誠權誠忭稽首稽首  
伏以欽惟伏念(臣)無任望  
天仰  
聖激切屏營之至謹奉  
表  
起居以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表

## (예문 7. 告訃表)

朝鮮國權暑國事(臣)姓 (諱)  
 言(臣)父先(臣諱)於年號幾年某月某日薨逝謹奉  
 表告訃者(臣諱)誠惶誠恐稽首稽首  
 伏以(臣)瞻  
 天仰  
 聖無任激切屏營之至爲此具本謹具奏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表

## ② 箋文

전문은 賀箋과 方物箋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同文彙考』에 수록된 전문은 대부분이 방물전이다. 賀箋은 正朝와 冬至에 전달되었다. 대체적으로 표문의 형식과 동일하지만, 황태자를 칭할 때는 秋香色籤紙를 붙였다. ‘欽遇’는 ‘恭遇’라 하고, ‘恭惟’는 ‘敬惟’라 하며, ‘表’는 ‘箋’이라 하였다. 본문에서 ‘瞻天仰聖’이 없는 것이 다르며, 단지 ‘懼忭踊躍’라 하였다. 방물전을 사례로 형식을 살펴보면 예문과 같다. 물목은 글자의 크기를 작게 적는다.

## (예문)

朝鮮國王臣姓 諱  
 右伏以  
 謹備  
 (物目)  
 右件物等臣無任兢惶激切之至謹隨  
 箋奉進以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箋

### ③ 狀文

전문과 동일하게 狀文도 方物狀이 대부분이며, 正朝・冬至・聖節에 필수적으로 전달되었다. 기타 謝恩使와 進賀使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尊”에 黃籤하고 황태후는 “皇太后陛下”로, 황후는 “中宮殿下”로 적는다. 황후에게 전달하는 장문은 “中宮殿下”를 2행으로 적는다.

#### (예문)

朝鮮國王(臣)姓 (諱)
謹備
尊號皇太后陛下
進
獻禮物
(物目)
右件物等謹奉進以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狀

### ④ 奏文

조선의 모든 외교적 사안은 奏文의 형식으로 청에 전달되는데, 발급주체는 朝鮮國王이다. 일반적으로 奏請文이라 하는 것이 모두 奏文에 속한다. 奏文은 크게 奏請文과 歲幣에 관련한 年貢奏本, 告訃奏本 등이 있다. 첩마다 7행 40자의 형식에 맞추어 적었다. 年貢奏本의 경우, 물목을 본문의 ‘爲’자부터 ‘右’자에 나열하여 적었다. 구체적인 외교사안을 다루는 문서였기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분량이 많았다. 실록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奏請事案의 前例와 관련사항을 모두 서술하여 다른 부수적인 문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른 사대문서와 달리 의례적인 구절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예문 1. 年貢奏本)

朝鮮國王(臣)姓 (諱)謹  
奏爲進  
貢事謹備進  
貢禮物順差陪(臣)職姓名(上使)職姓名(副使)等齋領進  
獻外今將禮物開坐謹具奏  
聞  
右 謹 奏  
聞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奏

(예문 2. 奏請奏本)

朝鮮國王(臣)姓 (諱)謹  
奏爲某事云云緣係某事理爲此謹具奏  
聞  
右 謹 奏  
聞 伏 候  
聖 旨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王(臣)姓 (諱)謹 上  
奏

⑤ 祭文

청 황실에 有故가 발생하였거나 薨하였을 경우에 致祭文으로 보낸 문서이다. 제문의 소지한 사행은 進慰使와 進香使였다. 분량에 있어 황제가 흥하였을 경우가 황태후 등이 흥하였을 때보다 장황하다. 제문의 전달은 요동을 통한 통보, 부경사행의 귀환 등을 포함한 청의 공식적인 통보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예문)

維年號幾年歲次某年某月干支某日干支朝鮮國王(臣)姓 (諱)  
謹遣陪臣職姓名(上使)以清酌大牢之尊敢昭告于  
大行皇帝陛下靈筵伏以尙  
饗

## ⑥ 咨文

2品 이상 衙門의 사이에 왕래한 平行文으로 조선국왕이 발급주체이다. 주요한 업무처리는 대부분 자문을 통하여 전달되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表箋文 등의 전달에 필수적으로 첨부되었던 문서이다. 형식적으로 황제에게 아뢰어 주기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끝맺는다. 이외에 禮部나 兵部 등 해당 관서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는 일반적인 통보사항이나 중국문서의 접수를 잘 하였다는 회신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사행이 會同館에 도착한 다음 날 회동관의 提督에게 전달하면 제독이 受領하여 禮部에 가서 바치는데, 堂公들이 같이 開坼하여 열람한 다음에 儀制司에 돌려주어 題目을 갖추게 하였다.<sup>33)</sup>

구체적인 내용의 형식을 살펴보면, 문서의 첫머리에 “朝鮮國王은 무슨 일을 위하여 …… 합니다.”라는 문서명을 기재하고, 이후 상세한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이것을 위하여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일을 행하니, 상세히 照驗하고 施行하기를 請합니다.”라는 말로 본문을 끝맺는다. 그 내용을 서술할 때는 대부분 ‘某官이 狀啓하기를, ……라고 하면서 자세히 啓聞하였으므로, 이것에 의거하여 照驗합니다.’라는 관련근거를 밝히거나, 회답하는 자문의 경우에는, ‘貴部の 咨文을 承准하니, 전의 일은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相應하여 欽遵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마땅히 자문을 보내고 復命하는 일을 행합니다.’라는 형식으로 적었다.

### (예문1. 咨文)

朝鮮國王爲某事云云事理專差陪臣職姓名(上使)職姓名(副使)等前赴  
京師進呈爲此合行移咨前去煩乞  
貴部轉  
奏  
天聰明降施行須至咨者  
右 咨  
禮 部  
年號幾年某月某日

33) 『通文館志』卷3, 事大, 咨文.

## (예문2. 方物咨文)

朝鮮國王爲進  
 賀事欽遇年號幾年某月某日  
 正朝令節修撰到進  
 賀  
 表文並備進  
 獻禮物專差陪臣職姓名(上使)職姓名(副使)等齎擎管領前赴  
 京師進  
 賀外今將禮物開坐合行移咨請  
 照驗  
 聞奏施行須至咨者  
 右           咨  
 禮           部  
 年號幾年某月某日

## ⑦ 申文

議政府 이하의 衙門에서 자문을 보낼 때에는 申자를 써서 ‘申稟’이라 하였으며, 申稟의 문서형식이 申文이다. 즉 발급주체가 衙門으로 청 예부나 기타 아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발급주체는 아문이지만, 국왕의 권위를 대신하여 보내는 경우에 한정되었으며, 일상적이고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왕명의를의 자문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정부의 명의로 신문을 하기도 하였다.<sup>34)</sup> 이때는 公議에 합의한 신하들의 성명을 列記하였다. 신문에 대한 회답은 筭付를 통용하였다.

34) 『中宗實錄』卷2, 중종 2년 2월 경인. 중종즉위 연간에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정식 고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정부 명의로의 신문을 전달하여 승습을 청하기도 하였다. 당시 三公 및 禮曹 당상이 賓廳에 모여, 奏聞使가 가지고 갈 申狀을 교정하였다.



(예문)

朝鮮國議政府領議政姓名等謹申爲某事云云爲此合行具申伏請  
照詳轉  
奏施行須至申者  
右 申  
禮 部  
年號幾年某月某日

⑧ 單子

單子是 방물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청 회동관에서 관련 물품의 대조에 있어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 전달한 문서이다. 방물의 내용과 단자의 내용이 차이가 나면 조선사행은 소지한 물품이나 돈으로 해당 물품을 채워 넣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문. 禮物總單)

朝鮮國差來陪(臣)職姓名(上使)職姓名(副使)等  
呈今將  
萬壽聖節進  
賀禮物  
冬至令節進  
賀禮物  
正旦令節進  
賀禮物進  
貢禮物數目開坐合行具呈  
計開  
聖節禮物  
御前  
(物目)  
冬至禮物  
御前  
(物目)  
正旦禮物  
御前  
(物目)  
進  
貢禮物  
(物目)  
右 具 呈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差來陪(臣)職姓名(上使)職姓名(副使)等

⑨ 呈文

조선사행이 북경에서 문서전달 및 회답서를 받아 돌아오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달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한 문서이다. 큰 범위에서는 자문의 한 형태이며, 衙門의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신의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이다. 즉, 개별적인 사신직책으로 발급하는 문서로 ‘呈’자를 써서 ‘呈稟’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회답하는 咨文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箭付를 通用한다.<sup>35)</sup>

(예문)

朝鮮國差來陪臣職姓名等  
呈云云  
右 謹 具 呈  
年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差來陪臣職姓名等

이상으로 청에 전달되었던 사대문서의 종류와 형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문서는 사용되는 종이와 봉하는 통에 있어 엄격한 규격이 정해져 있었다. 表文·箋文·狀文 등은 正本과 副本으로 구분하여 규격이 정해졌으며, 皮封된 外面에 적는 글도 문서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다. 사대문서의 규격은 <표 2>와 같다.

<표 2> 使行時 文書封進

文書		封進	
踏寶	正本	踏末端年月及皮封面 凡文書連張處踏寶封紙上踏寶 皇帝陛下・皇太后陛下(黃綾籤)	每字高低有4層(謂之行) 表箋狀文(每1字爲1行) 奏本咨文(過1字爲1行) 黃籤書1行起
	副本	踏年月及衣面 中宮殿下・皇太子殿下(紅綾籤)	
	咨文	只踏年月左旁 踏咨字下踏御押 *숙종8(1692) 因禮部咨皇太子字籤改以秋香色函 袱同	
表文	正本	長7寸9分, 廣3尺(用周尺) 1行(20字), 字極細, 用淡墨 皮封外面合衿處(“朝鮮國王(臣) 姓(某) 謹上表”)	奏本咨文(過1字爲1行) 黃籤書1行起
	副本	作帖紙: 長7寸5分, 廣2寸6分, 無定數 外粧(黃綾衣), 衣面(綾籤), 書表副 每帖6行(20字), 用深墨, 小字	

35) 『通文館志』卷3, 事大, 咨文.

箋文	正本	長7寸9分, 廣3尺(用周尺)	皮封外面合衿處(“朝鮮國王(臣) 姓(某) 謹上箋”)	中宮殿紅箋書2行 起 皇太子紅箋書1行 起  封筒 表文(黃龍) 箋文(紅龍) 狀文(鳳凰)
	副本	作帖紙: 長7寸5分, 廣2寸6分, 無定數	外粧(黃綾衣), 衣面(綾箋), 書箋副 每帖6行(20字), 用深墨, 小字	
狀文	正本	長7寸9分, 廣3尺(用周尺)	皮封外面合衿處(“朝鮮國王(臣) 姓(某) 謹封”)	
	副本	作帖紙: 長7寸5分, 廣2寸6分, 無定數	外粧(黃綾衣), 衣面(綾箋), 書箋副 每帖6行(20字), 用深墨, 小字	
表文 箋文 狀文	奏本	作帖紙: 長7寸5分, 廣2寸6分, 無定數	踏年月及衣面 每帖7行(40字), 字比副本差小	
	咨文	作帖紙: 長1尺2寸5分, 廣3寸2分半, 無定數	每帖9行(66字), 字比副本差大	

\* 출처 : 『通文館志』

### 3. 事大文書の 작성과 전달과정

#### 1) 中國文書の 작성과정

청대의 일반적인 행정문서체계를 살펴봄으로 조선에 관련된 외교문서의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조선시대 한중관계는 조공체제였기에 국내문서와 외교문서의 엄격한 구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한중관계에 관련된 문서를 외교문서로 정의할 수 있다. 청에서 발급되는 문서 중 조선에 전달되거나 관련된 문서를 중심으로 문서작성 절차와 전달체계를 살펴보도록 한다.<sup>36)</sup>

외교문서의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되는 아문을 살펴보면, 禮部, 內閣, 軍機處 등이 있다. 특히, 청의 문서작성 및 전달체계에 있어 內閣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문서체계를 확립하지 못하던 청은 1658년(順治 15) 명의 제도를 참조하

36) 청대의 문서체계에 관련해서는 張我德, 楊若荷, 裴燕生の 위 책, 『大清會典』, 『清會典事例』, 『清實錄』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여 중앙에 내각을 설치하여 황제를 위하여 本章(공용의 상주문)을 취급하고 京內外 대신들에게 詔令이나 諭旨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내각의 직책구성을 살펴보면 大學士, 學士, 侍讀學士, 侍讀, 典籍, 中書, 中書舍人, 筆帖式 등이다.<sup>37)</sup> 내각의 구성 및 임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內閣의 구성 및 임무

職銜	員數	任務
大學士	滿漢 各1人	兼殿閣及六部尙書銜, 均由特簡 贊理機務表 率百寮補授後請旨
學士	滿6人, 漢4人	兼禮部侍郎銜, 掌敷奏本章傳宣綸綍
侍讀學士	滿4人, 蒙古2人, 漢2人	掌收發本章總稽繙譯
侍讀	滿10人, 蒙古漢軍漢人 各2人	掌勘對本章檢校籤票
典籍	滿洲漢軍漢人 各2人	掌收貯圖籍出納文移
中書	滿60人, 蒙古16人, 漢軍8人, 漢30人	掌撰擬紀載繙譯繕書之事
貼寫中書	滿40人, 蒙古6人	
中書舍人	滿2人, 漢4人	中書科, 掌書誥勅
筆帖式	10人	

\* 출처 : 『大清會典』卷2, 內閣條

내각의 설립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629년(天聰 3) 文館를 설립하여 한문으로 된 서적을 번역하도록 하였으며, 1636년(天聰 10) 內國史院, 內秘書院, 內弘文院의 內三院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내삼원은 명확한 분업이 있어 內國史院은 起居注와 詔令의 문서를 기록하고 御製文字를 거두어 기록하는 것을 관장하였다. 특히, 국가적인 군사행정, 六部가 처리한 사무, 외국과 왕래하는 서찰들을 집대성하여 실록을 편집하고, 祝文, 誥命, 冊命의 초안을 썼으며 기밀문서와 각 관리들의 奏章을 편찬하였다.<sup>38)</sup>

1645년(순치 2), 翰林院과 內三院을 합병하고, 本章의 진상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여 각 部와 관계가 없거나 혹은 정사를 조목별로 써서 진술한다거나

37) 『大清會典』卷2, 內閣.  
38) 張我德, 楊若荷, 裴燕生, 위 책, 24면.

외국의 기밀이거나 기묘한 모략과 같은 本章은 모두 內院를 거쳐 상주하도록 하였다.<sup>39)</sup> 1670년(康熙 9)에 이르러 內三院은 명칭을 內閣으로 고쳤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청의 중원통치에 대한 체제정비의 과정이자 만주족의 행정문서체계에서 점차 명대의 문서체계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내삼원 가운데 內秘書院은 외국과 왕래하는 書狀, 敕諭, 題文의 초안을 쓰고 각 관아의 上奏文 및 詞狀의 초록을 관장하였다. 실질적으로 조선에 전달되는 황제명외문서는 이 두 기관에서 작성되었다. 기타 內弘文院은 典考에 대한 고찰을 비롯한 국가문물전장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내각의 주요한 屬司를 살펴보면, 典籍廳, 滿本房, 漢本房, 蒙古房, 滿票簽處, 漢票簽處, 批本處, 收發紅本處, 副本處, 誥勅房, 稽察房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외교문서에 관련된 관사로 典籍廳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에서 보낸 외교문서는 會同館과 예부의 主客淸吏司를 거쳐 典籍廳에 최종적으로 접수되었다. 典籍廳은 공용의 상주문이라 할 題本에 대해 한자로 된 諭旨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表章을 담당하며, 각종 도서를 등록하여 보관하였다. 중대한 축전을 거행하게 되면 典籍廳에서 계획하여 실시하였으며, 內閣에는 인장이 없어 조선에 공문을 보내야 할 때는 典籍廳의 關防을 차용했다.

조선의 외교문서는 예부를 거쳐 漢本房에 전달되면 漢本房에서는 받은 題本을 등록한 후에 만주어가 없다면 貼黃을 하여 만주어로 번역하고 滿本房에 필사를 맡겼다.<sup>40)</sup> 滿本房은 滿本房의 中書에게 필사를 맡기고 侍讀學士와 侍讀이 교열하였다. 만주어 祭祀의 祝版, 壇廟神位의 題字, 鑄制冊寶의 필사와 만주말로 된 諡號, 封號, 諭旨, 賀表의 필사를 책임졌다. 實錄庫와 皇史宬(황실의 사료를 보관하던 장서각)에 수장된 實錄, 聖訓, 起居注, 玉牒, 經略將軍의 印信을 관장하였다. 기본적으로 한본방의 경우 通本 업무에 대한 접수·발송을 관장하였으며, 만주어로 된 上諭, 碑文, 冊寶, 祝版 등을 번역하였다. 또한,

39) 『東華錄』順治四.

40) 『大清會典』卷2, 內閣. “各部院及直省題疏到內閣(舊制公事用題本 私事用奏本 乾隆十三年 定並改題本) 呈得旨轉下六科 鈔發各部院施行” 조선에서 청에 보내는 奏文은 關內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公務에 해당되지 않고 조선국왕이 私用으로 올리는 문서였기에 奏本이라 하였다. 1748년(건륭 13) 이후에는 모두 題本으로 통일되었다.

漢本房은 매일 받은 題本을 작성하고 題本과 함께 바쳐야 했다.

漢票簽處의 주요 직분은 한자로 된 本章(=題本)을 교열하는 것과 만주어 票簽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滿票簽處와 함께 황제가 순시를 나가거나 避暑山莊에 가거나 木蘭圍場에서 사냥을 하면 관원들이 상소한 題本을 행재소에 보내 바쳐야 했다. 육과에 초록을 맡긴 本章을 발췌·요약하여 『絲綸簿』에 올려 황제가 결재한 諭旨를 상세히 수록해야 했다. 유지를 내면 각 관아에 초록하게 하였고, 만일 특별히 유지를 내렸으면 『上諭簿』에 수록했다. 漢票簽處에는 制詔誥勅, 祭告祝文, 諡號, 封號 등 御製文字의 초안을 쓰는 직책이 있었으며 또, 궁정의 匾額, 御製詩文集과 여러 왕과 대신에게 하사하는 비문을 초록하였다.

滿票簽處는 제출된 題本을 批本處에 전달하면 批本處는 그것을 內奏事處를 통해 황제에게 바친다. 批本이 내려지면 批本處는 황제가 보고 정한 票簽을 붉은 붓으로 본면에 기록하여 紅本을 만든다. 收本房 혹은 紅本處라고도 하는 收發紅本處는 비준된 本章을 六科로 보내 초록하도록 하고, 연말에 題本을 반납받아 典籍廳에 통지하고 紅本을 紅本庫에 보존한다. 副本處는 副本의 보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729년(雍正 7)에 本章의 副本은 正本과 함께 內閣에 보내 奉旨한 후에 內閣이 副本의 곁쪽에 墨筆로 기록에 따라 붉게 비답하고 副本處에 收藏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조선국왕이 고명이나 칙명을 받고자 하여 주문을 청에 보내면, 내각의 誥勅房에서 담당한다. 漢票簽處에서 誥勅의 초안을 세우면 誥勅房에서 심사·결정하고 正本을 초록한 후에 공포한다. 封贈(영전의 수여), 誥勅의 版式을 새기고 필요할 때마다 인쇄하여 中書科에서 品級에 따라 기입하고 대조·교정한 후 공포한다. 金銀冊은 다 새기고서 誥勅房에서 대조·교정한다.

이외에도 稽察房이 있어 각 部和 院의 遵旨(명령을 따르는 것)와 議覆(논의가 뒤집히는 것) 사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검열한다. 매월 이미 끝났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을 한데 모아 황제에게 한 차례 奏上한다. 軍機處는 매일 나온 한어, 만주어 諭旨를 滿票簽處에서 稽察房에 옮겨 보존하고, 월말에는 만주어와 한어가 함께 갖춰져 있는 上奏文을 모은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 內閣의 직분은 詔令의 초안을 정하고 반포하

며, 諭旨를 반포하고 “御製”문자를 초록하고, 本章의 처리에 참여하며, 큰 경전의 준비작업을 한다. 그 중에 일상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本章의 처리이다.

청 조정 내부의 일상적인 문서의 전달과정은 通政使司에서 題本을 漢本房으로 보내는데 中書가 그것을 簿冊에 등록한 후에 侍讀學士와 侍讀이 급한 정도에 따라 中書에게 나누어 貼黃을 만주어로 번역하고 교정·대조한 후에 滿本房으로 보낸다. 滿本房은 만주어로 된 貼黃을 正文으로 베끼고서 대조·검토하여 通本の 좌측면에 붙여 漢票簽處로 보낸다. 조선사신이 문서를 제출하는 아문은 예부이며, 部本은 직접 漢票簽處로 보낸다. 漢票簽處의 中書는 식에 따라 한어 草簽에 票擬(처리방법을 내는 것)하고 설명할 것이 더 있으면 說帖을 더 작성해서 덧붙여 바친다. 滿票簽處는 만주어 票簽의 초안을 쓰고 票擬草簽을 題本과 함께 써서 內閣의 大學士에게 보낸다. 겉면에 요점을 발췌하여 쓴다. 대학사가 심사한 후 직접 “某看(누가 봤음)”이라고 쓰고 票簽處 中書에게 만주어와 한어가 함께 있는 正簽을 초록하게 하고서 본장 안에 끼운다. 초록한 자는 票簽 말미에 서명을 해야 한다.

票擬라고 하는 것은 本章에서 진술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내서 황제에게 裁定(판결, 결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內閣에서 행하는 “贊理庶政”의 중요한 내용이다. 票擬는 通本, 部本으로 구분되는데, 通本은 각 성에서 제청한 사건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관련 部와 院에 의해 선택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며 혹은 관련 부원이 알게 하였다. 즉, 票擬는 “該部議奏”, “該部知道” 등이다. 部本은 경도의 각 部와 院에서 각자 政事의 주관을 제청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건을 의논하고 “依議”를 票擬한다.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이나 보충이 필요하면 설명과 보충을 해야 한다. 部本은 빈칸으로 둔 채 서명하는 票가 경우가 있는데 관원을 보충하거나 파견관을 파견하는데 쓰는 것으로 황제가 직접 이름을 써 넣는다.

그밖에 殿試의 날짜 등도 공란을 두어 황제가 직접 쓰도록 한다. 황제가 써 넣거나 고친 票簽은 朱簽이라고 부른다. 部本에는 兩簽, 三簽, 四簽이 있는데 이는 여러 종류의 처리의견이 연관되었음을 뜻한다. 그 모두를 열거하여 황제가 정하도록 한다. 일부 형벌에 관한 안건은 처분하는 인원이 비교적 많아 죄벌의 경중이 모두 같지 않을 경우도 三簽, 四簽이 필요했다. 雙簽 이상인 경우



는 說貼을 써서 그 이유를 밝혔다.

만주어와 한어가 함께 있는 票簽의 초록은 사건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분류하여 黃綾匣(노란비단상자) 안에 넣고 다음날 여명 때에 滿票簽處의 中書가 그 黃綾匣을 들고 乾淸門안의 批本處에 낸다. 동시에 批本處는 지난번에 황제의 심사를 받은 本章을 그 中書에게 가지고 돌아가게 한다. 批本處는 받은 本章을 內奏事處에 보내고 記檔太監의 등록을 마치고 內奏事太監이 황제에게 바친다. 황제는 本章을 보고 票簽을 사정한 후에 批本處에 돌리면 批本處의 翰林과 中書는 사정한 만주어 票簽을 한자부분의 본면에 대조하여 기록한다. 하루 뒤에 滿票簽處의 中書는 만주어 票簽을 기록한 題本을 典籍廳에 제출한다. 典籍廳의 漢學士는 황제가 사정한 한자로 된 票簽을 한자부분의 본면에 대조하여 기록한다. 기록(錄批)할 때에 붉은 붓을 쓰는데 이를 “批紅”이라고 한다. 청의 제도에 의하면 皇帝의 喪은 100일 동안 푸른 붓을 쓰고 皇后의 喪은 27일 동안 푸른 붓을 쓴다.

“批紅”을 한 후 本章은 收發紅本處로 보낸다. 六科<sup>41)</sup>는 매일 당직 給事中을 收發紅本處로 보내 題本을 수령하게 하여, 正抄와 外抄로 나눠 각 관아로 초록하여 보내 처리한다. 元本은 六科에 보존하는데 연말에는 한해동안 받은 모든 題本을 모아 內閣에 돌려주며, 紅本處는 典籍廳과 회동하여 그것을 紅本庫에 저장한다.

황제가 本章의 처리를 보면 內閣은 票擬하는 것 이외에 또 本章의 중요한 부분에 쪽지를 끼워 요점을 제시하였는데 연후에 그 쪽지를 黃色飛簽으로 고쳐 붙였다. 諭旨를 내려 내각에 이르면 滿票簽處에서 각 관아에 내각에 와서 초록을 하고 이행할 것을 통지했는데 이것을 閣抄라고 한다. 황제가 특별한 유지를 내리면 즉각 發抄하였다.

만약 奏請이 있어 말한 것이면 奏折과 諭旨는 함께 초록한다. 奏折이 奉旨된 후에 發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該部議奏’, ‘該部知道’를 朱批하면 또 즉시 發抄한다. ‘覽’을 朱批하거나 혹 ‘知道了’를 朱批하거나 혹 그 일에 대

41) 『大清會典』卷3, 吏部. 六科에는 각각 공히 正5품의 掌印給事中이 滿漢 각 1인, 給事中 滿漢 각 1인, 筆帖式 滿 80인이 있어 해당 문서출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 인허가를 朱批하거나 칭찬과 격려의 말의 훈령을 朱批하는 것은 모두 그 일이 部院에 관련되는 것을 보고 담당자가 즉시 發抄하고 部院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發抄하지 않았다.<sup>42)</sup> 諭旨의 發抄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보통의 諭旨를 발할 때는 각 관아는 모두 내각에 와서 초록한다. 일부분이 관아와 관련된 것은 해당 관아가 초록하고 시행한다. 한 관아에 대해 반포한 諭旨는 해당 관아에서 초록한다. 자기 관아가 올린 奏折이 奉旨된 것에 대해서는 朱批만을 초록하고 奏折을 초록하지는 않는다. 다른 관아가 올린 사건이 만일 자기의 관아와 관련되어 있다면 본래의 奏折과 朱批를 함께 초록한다. 閣抄의 방식은 표지에 “內閣抄”라는 세 글자를 쓰고 첫 쪽부터 正文을 초록하였다. 중국문서의 대조선 전달과정은 중국 사신의 영접과정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sup>43)</sup>

## 2) 朝鮮文書の 작성과 전달과정

『經國大典』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공문서의 기본 規式을 정하였는데,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 『洪武禮制』였다.<sup>44)</sup> 藝文館에서 事大文書を 製述하고, 承文院에서 筆寫하였다.<sup>45)</sup> 事大文書나 交隣文書の 작성은 弘文館이나 藝文館의 文官 중에서 吏文에 통하고 文才가 있는 자가 작성하였다. 표문과 전문은 知製敎, 奏文은 大提學이나 提學이, 頭辭와 咨文은 製述官 혹은 學官이 작성하여 받쳤으며, 자문 가운데 일이 중요한 것은 文任이 작성하여 받쳤다.<sup>46)</sup> 事大交隣文書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國璽와 官廳印의 처리로 완결된다. 조선시대 官廳印의 경우, 관청의 序列에 따라 印章의 크기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印章의 종류와 사용례를 國璽와 官廳印으로 구분하여 규정해 놓았다.<sup>47)</sup>

42) 『光緒會典』卷3, 辦理軍機處.

43) 김경록, 2004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117, 일지사, 참조.

44) 『洪武禮制』의 公文書式에 대한 내용은 金在文, 『朝鮮王朝의 法典上的 古文書와 韓國法研究』, 『정신문화연구』15권 1호, 1992, 130-131면, 참조.

45) 『大典會通』禮典 事大條.

46) 『同文彙考』原編 卷1, 封典. “凡表箋知製敎 奏文大提學或提學 頭辭及咨文製述官或學官製進 而咨文中事重者 則文任製進”

事大文書는 程道에 오르기 7, 8일 전에 啓達하고, 2일 전에 필사를 끝마쳤다. 承文院提調가 감독하여 바치며, 拜表日에 議政府, 六曹, 承文院提調, 正使·副使가 다시 查對하였다.<sup>48)</sup> 사대문서의 성격상 중요성이 있어 사대는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서울에 있을 때에 3차례 查對하는데, 承文院에서 黑草를 查對하고, 方物을 봉과하는 날 議政府에서 사대하고, 拜表하는 날 慕華館에서 사대한다. 使行이 출발하면, 또 黃州·平壤·義州 3곳에서 查對하는데, 三使臣이 公服을 갖추어 입고 卓子 옆에 侍立하고, 一行 중의 사람을 골라서 黑草를 읽게 하고서 확인한다. 만약 誤字가 있으면, 馳啓하고 고쳤다.<sup>49)</sup>

사신이 소지한 문서의 총수는 사행에 따라 차이가 있고, 모든 표전문은 반드시 자문을 첨부하였다. 사행의 업무는 지참한 문서에 의해 규정되고, 문서전달에 있었다.<sup>50)</sup> 개별 사행별로 지참하였던 문서의 종류와 수량은 <표 4>와 같다.

<표 4> 使行時 貢去文書總數

使行名	貢去總數
冬至·正朝使	御前表：正·副本 各 1, 方物表：正·副本 各 1, 禮部咨：1 皇太后前狀：1, 禮部咨：1 皇太子前箋：正·副本 各 1, 方物箋：正·副本 各 1, 禮部咨 1
聖節使	御前表：正·副本 各 1, 方物表：正·副本 各 1, 禮部咨 1 皇太后前狀：1, 禮部咨 1 年貢奏本：1, 禮部咨 1, 禮物摠單 1
謝恩·進賀使	御前表：正·副本 各 1, 方物表：正·副本 各 1, 禮部咨：1 皇太后前狀：1, 禮部咨：1 皇太子前箋：正·副本 各 1, 方物箋：正·副本 各 1, 禮部咨：1, 禮物摠單：1
奏請·陳奏使	御前奏本：1, 禮部咨：1, 方物奏本：1, 禮部咨：1 皇太后前單本：1, 禮部咨：1 皇太子前啓本：1, 禮部咨：1, 禮物摠單：1
陳慰使	御前表：正·副本 各 1, 禮部咨 1, 進香祭文：1 皇太子前箋：正·副本 各 1, 禮部咨：1
告訃使	御前表：正·副本 各 1, 禮部咨：1 皇太子前箋：正·副本 各 1, 禮部咨：1
問安使	御前起居表：正·副本 各 1, 方物表：正·副本 各 1, 禮部咨：1, 禮物摠單 1

\* 출처: 『通文館志』

47) 『典律通補』~禮典 聖寶條.

48) 『經國大典』~禮典 朝儀 事大條.

49) 『通文館志』卷3, 事大上 查對條.

50) 김경록, 2000 위 논문 참조.

조선의 외교문서가 청에 전달되는 과정은 공문서의 주고받는 관계, 즉 行移體系로 볼 수 있다. 공문서의 한 종류로 외교문서는 조선을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하느냐에 의해 行移체계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통시대 조공체제에서는 외국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없었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공문서의 일환으로 조선에 외교문서가 전달되었으며, 외교문서의 한 종류로 구분되는 문서들이 조선 국내의 공문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국왕에게 올리는 표문과 전문의 일반적인 형식과 규정은 그대로 외교문서의 형식과 규정과 일치하는 경향성이 이를 말한다.

行移體系에 있어 외교문서는 청대에 와서 예부로 呈納處가 일원화되었다. 朝鮮에서 일체로 應對하는 일들은 마땅히 담당 부서를 건너뛰어 황제 御前에 바로 奏聞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功勞를 敍勳하는 일은 吏部, 地畝와 倉庫의 錢糧에 관한 일은 戶部, 朝賀하고 方物을 貢獻하는 儀禮는 禮部, 軍務와 도망한 盜賊을 잡는 일은 兵部, 詞訟에서 먼저 告發하는 일은 刑部, 城池와 邊方의 關門에 관한 일은 工部를 통하여 주문하도록 규정되었다가 뒤에 禮部에 함께 보고하면, 의논하여 覆奏하도록 되었다.<sup>51)</sup>

북경에서의 문서정납을 살펴보면,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다음날 正使 이하가 公服을 갖추고 表文 등을 받들고, 禮部에 나아가 尙書를 비롯한 관원과 見官禮를 행한 뒤 문서를 전달하였다. 이때의 절차에서 명청의 차이가 있다. 명대에는 正使가 문서를 받들고 꿇어 앉아서 고하기를, “國王의 咨文입니다.”라고 하면, 尙書가 명하여 이것을 받도록 하고, 다시 말하기를, “일어나도록 하시오.”라고 한 다음에 正使가 일어나서 물러 나와 쉬는 곳에 돌아와서 앉았다. 通事가 表文을 儀制司에 바치고, 正使 이하가 主客司와 儀制司에 두루 찾아가서 禮를 행하고 회동관으로 돌아왔다.<sup>52)</sup> 이에 비하여 청대에는 尙書(혹은 侍郎)와 郎中이 公服을 갖추고 大廳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서면, 大通官이 三使臣을 인도하여, 表文과 咨文을 받들고 꿇어앉아 郎中에게 바치는데, 낭중이 이것을 받아서 卓子 위에 안치하고, 通官이 사신을 인도하여 물러나왔다. 즉, 명대에는 예부상서에게 자문만 전달하고, 해당 부서에 표문과 전문 등을 전달한

51) 『大清會典』卷3, 吏部 內閣.

52) 『荷谷朝天錄』

것에 비하여 청대에는 예부상서에게 모든 문서를 전달하였다.<sup>53)</sup> 기타 북경에서 문서전달과정 및 사행의 외교절차에 관련한 내용은 선행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sup>54)</sup>

청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정식사행을 통해 모두 전달하였던 것은 아니다. 奏稟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역원의 통사를 차정하여 咨文을 가지고 禮部에 가서 전하여 奏達하고 聖旨를 청하였다. 그밖에 咨文을 報告하고, 자문을 回報하고, 曆日을 받았다. 당시 曆書는 王本 1本, 民本 100本 등 모두 101本을 수령하였다.<sup>55)</sup>

#### 4. 朝鮮後期 事大文書의 특징

조선시대 대외관계는 조공책봉체제의 틀에서 이루어졌기에 사행이라는 수단을 필요로 하였다. 즉, 사행과전 주체의 명의를 바탕으로 외교적인 교섭을 수행하였으며, 전통적으로 ‘臣子無交’의 개념이 있어 대외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sup>56)</sup> 조선의 입장에서 황제에 대해 조선국왕은 책봉을 받은 신자로 다른 신화된 자와 교섭을 벌이는 것은 事大의 예에 어긋났다. 이 점에서 조선시대 외교문서는 황제와 국왕이라는 주체만이 존재하였다. 비록 예부에서 조선에 보내는 문서라 하더라도 ‘奉旨’라 하여 황제의 명의를 근거하였다.

또한, 대외관계의 형식은 대중국사행과 사신접대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대중국사행의 경우는 명의 구제를 철저히 받아들인 청의 입장에서 모든 국가운영의 전반적인 틀을 문서행위 위주로 하였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실무 담당자를 만나 외교적인 담판이나 교섭을 행할 수는 없었으며, 사행의 업무 대부분이 문서전달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사대문서가 가지는 의미는 명확한 증빙자료의 성격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 과정이라 할 것이다.

사대문서는 다른 문서와 달리 엄격한 규격과 정식이 있어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字體, 字樣, 行格規式, 避諱文字, 文書紙 등 고려요소가 다양하

53) 『通文館志』卷3, 事大 文書呈納.

54) 김경록, 2000 위 논문 참조.

55) 『同文彙考』卷42, 原編 曆書

56) 『禮記』郊特性篇.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

여 예문관, 승문원, 사역원 등 여러 관아의 관원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문서작성의 어려움은 시대별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외교적인 현안으로 대두하기도 하였다. 조선건국초기의 표전문사건은 대표적인 외교문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이다. 이 절에서는 사대문서에 관련된 일련의 외교적 사안이 발생하는 경향성을 통해 청의 대조선인식 및 정책, 조선의 대청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명대는 조선건국초기 표전문사건 이후 사대문서가 외교적인 사안으로 등장한 경우가 거의 없다. 表箋文사건은 文字獄을 통해 개국공신세력을 일소하고 황제권의 강화를 의도하였던 홍무제의 국내적 정치력이 대외적으로 표현된 것이었다.<sup>57)</sup>

조선은 명의 내각정치, 환관정치가 고착화되어 가는 경향성 속에서 대외활동의 모든 경로가 사대문서에 있음을 파악하고 사대문서의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58)</sup> 승문원, 사역원 등의 기관을 정비하여 사대문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사대문서에 사용되는 이문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이문학관을 두기도 하였다. 명대의 조명관계는 전형적인 조공책봉관계로 정착되어 갔다.

입관이후 명의 제도를 계승한 청은 중국지배에 있어 군사적으로 몽고를 정복하여 理藩院을 두어 다스렸다. 이에 비하여 한족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으로서 강화된 유학계승 및 변형된 중화사상과 금서정책을 통하여 경계하고자 하였다.<sup>59)</sup> 또한 준가르의 준동을 계기로 군기처를 설치하고, 이후 건륭초에 정치적인 변동으로 군기처를 재정비함으로써 機務政治를 실시하였다.<sup>60)</sup>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정치행정체계는 문서행위를 위주로 정착되어 명대의 문서체계를 능가할 정도로 정치하게 운영되었다.

조선후기 수시로 등장하는 사대문서의 문제는 청대의 문서체계에서 연유한 것이다. 조선전기 편찬된 법전에서 사대문서식이 없는 것에 비하여 조선후기 『전률통보』~등에 자세한 문서식이 수록된 점, 대명관계에서의 유일한 사대문

57) 박원호, 2002 『明初 朝鮮關係史 研究』~일조각. 53-63면.

58) 『중종실록』권2, 중종 2년 2월 기축.

59) 小野和子, 1986『清朝の思想統制をめぐる』『雍正時代の研究』, 575-582면.

60) 송미령, 2003 「건륭초 구세력 배제와 군기처 정비」 『명청사연구』18, 131면.

서식을 보여주는 『고사촬요』의 표전식이 『통문관지』, 『동문회고』 등에 기재된 사대문서식에 비하여 매우 소략한 점을 통하여 대명관계보다 대청관계에서 사대문서가 외교적인 사안으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조청간의 외교문서 가운데 사대문서에 관련한 규정적인 내용은 병자호란직후 청태종의 詔諭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명에서 받은 誥命과 冊印을 청에 바치고, 성절·정조·동지 및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예물을 바치고 대신 및 內臣이 表文을 바치도록 강요하였다. 이때 바치는 表文과 箋文의 定式 및 詔勅을 내리거나 사신을 보내어 傳諭할 때에 사신과 상견하거나 배신이 謁見禮, 迎送, 饋遺禮를 명의 舊例에 따르도록 하였다.<sup>61)</sup> 이전의 조청간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國書라 칭하여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동일한 교린문서로 취급하였다.<sup>62)</sup>

1637년(인조 15) 이후 조청간의 외교문서는 교린문서에서 사대문서로 형태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사대문서의 일반적인 형식에 의거하여 왕래하였다. 황제 명의의 문서뿐만 아니라 각 아문발행 문서의 경우도 명의 구례에 의거하였다. 조선에 전달되는 문서를 발행하는 아문으로 禮部, 兵部, 戶部 등이 있다. 이들 아문은 조선의 중앙조정을 대상으로 문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義州를 비롯한 변경의 지방관아를 대상으로 자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sup>63)</sup>

조청관계에서 사대문서가 외교적인 사안으로 등장하는 것은 청의 중국지배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강희제시대였다. 병자호란이후 강압적인 조선정책으로 일관하던 청은 입관이후 점차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다 강희제 치세에 이르러 우호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청의 입장에서 중화사상에 가장 충실하였던 조선을 전통적인 조공책봉체제로 관련성을 맺음으로써 조선관계를 전형화 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내부적으로 반청사상을 무마하기 위해 금서정책 및 사상정책을 실시하고, 외부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반청의식을 견제하기 위해 일정한 외교적 압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사대문서 문제로 발생하였다.

61) 『인조실록』권34, 인조 15년 1월 무진.

62) 『인조실록』권34, 인조 15년 1월 계묘. 당시 병자호란의 종전협상 과정에 조선문서를 國書로 통칭하였다.

63) 『通文館志』卷9, 紀年, 인조 15년.



조선의 입장에서는 대청관계에 있어 사대문서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청의 불만을 초래하여 사대문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숙종대에 사대문서에 오류가 벌금을 명받거나, 질타를 받는 일이 많아 1705년(숙종 31)에는 이례적으로 청 예부에서 “표전문은 일정한 양식을 이미 반포하였는데, 조선만이 매년 문사를 변경하기 때문에 자구 사이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후로는 내각이 편찬한 표전성식에 의거하여 번거로운 글을 생략하도록 하라”는 자문을 보내오기도 하였다.<sup>64)</sup>

숙종대 문서의 문제점은 영조대 적극적인 대처로 무난하게 해결되었지만, 영조 초반기에 『明史』의 하사를 둘러싸고 청에 주청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던 점과 후반기 개인 사서에 기록된 종계변무를 마무리하였던 점을 영조는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그 과정에 내왕하였던 외교문서를 『신묘중광록』으로 묶어 출간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문서식으로 인한 한중관계의 외교사안을 정조 2년에 있었던 違式 사건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조 즉위과정에서 흥인한 등의 반발이 있었으며, 이들을 제거하면서 역모사건이 발생하자 정조는 그 내용을 청에 알렸다.<sup>65)</sup> 당시 진주사는 河恩君 李堯이었으며, 주문을 찬술한 이는 金鍾秀였다. 진주사일행은 정조 1년 12월 27일 北京에 도착하여 禮部에 나아가 表文과 咨文을 전달하자 侍郎 范時純이 領受하였다. 당시 皇太后的 喪中 27朔 안이었기에 元朝의 賀禮를 거행하지 않았으며, 鴻臚寺의 演禮도 자연히 停免되었다.

禮部尙書 永貴가 조선사행의 通官 朴寶樹를 불러 먼저 진주한 사정을 탐문하자 자세하게 그 顛末을 전하였다. 영귀는 정조의 진주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즉시 주달하도록 주선하였다. 건륭제가 太廟에 친제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皇帝에게 陳稟하자, 건륭제가 즉시 奏文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명하여 親覽한 뒤에 조선이 평소 諸侯의 법도에 恪勤하였음을 언급한 뒤 주문의 字劃이 아주 精細하니 잘 볼 수 있도록 다시 써서 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건륭 후반기의 청 조정에는 조선에 우호적인 인물이 많이 중앙정계에 존재하였다. 禮部侍郎 阿肅·兵部侍郎 金輝·戶部侍郎 金簡 등이 조선의 입장을

64) 『燃藜室記述』卷5, 事大典故, 奏箋.

65) 『同文彙考』原編, 卷35, 陳奏, 丁酉 陳討逆奏.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우호적인 자세를 취한 인물들이었다. 특히, 김간과 김휘는 조선인으로 병자호란이후 先祖들이 청조에 입조하였던 인물이다.

사행목적이었던 진주는 무난히 처리되었지만, 의외의 聖旨가 내림으로 인해 사행은 조선에 馳啓하여 대응을 지휘받았다. 황제에게 올린 문서, 즉 주문에 내용상 문제가 아니라 위식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당시 예부에 내려진 聖旨는 다음과 같다.

“乾隆 42년 12월 29일에 朝鮮國의 來咨 및 奏摺 1건을 接准하여 本部를 經유하여 대신 恭進하였다가 聖旨를 받들건대, ‘朝鮮國王이 아뢴 것을 보았다. 該國에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해국의 왕이 辦理하기를 더없이 允協하게 했었으니, 朕이 마음에 아름답게 여기며 위로된다. 奏摺 내용에 措辭가 該部의 體式에 맞지 않게 된 곳에 있어서는 국왕에게 移咨하여 알게 하라. 그 奏請한 바, 內地의 邊境에 있어서 해국의 왕을 위하여 餘黨들을 緝문해서 잡아 달라고 한 한 절목은 이미 盛京將軍과 山東巡撫에게 유시하여 착실하게 힘써 妥辦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sup>66)</sup>

사행은 예부를 통하여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문제의 문구는 “儲君嗣位”였다. 진주사일행의 어려움은 위식문제 뿐만 아니라 ‘方物移準咨文’ 내용에 剩餘의 수효가 달라 호부관원들이 題奏하여 行咨하기로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량에 있어 차이가 있는 항목이 12군데로 진주사행은 지참하였던 官銀 300兩을 가지고 內務府와 禮部의 主事에게 주어 開印하기 전에 咨文을 入奏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다음 해 정월 21일에 발급된 回咨에 구체적인 위식내용이 언급되었다.

“... 本部에서 자세히 보건대, 原奏 내용에 儲君 및 國王嗣位 등의 語句가 있는데 격식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어구는 해당 本國의 自稱에 있어서는 원래 금하지 않는 어구에 속하는 것이지만, 위에 고하는 敘述에 있어서는 禮制에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該國이 이에 앞서 立世孫 및 國王嗣爵을 청한 것은 모두 天朝에 請命하여 勅旨를 遵奉해 거행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니, 저군 및

66) 『同文彙考』原編, 卷41, 飭諭. 戊戌 禮部知會討逆奏文內字句違式咨. “禮部爲咨行事儀制清吏司案呈 乾隆四十二年十二月二十九日 准朝鮮國來咨並奏摺一件 經本部代爲恭進 奉聖旨覽王奏該國有不幸之事 而該國王所辦極爲允協 朕心嘉慰 至摺內措詞有不合式之處 該部咨王知之 其所請內地邊境爲該國王詰緝餘黨一節已諭盛京將軍山東巡撫實力妥辦矣”

사위란 어구는 단정코 奏牘에 나열함이 마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大皇帝께서 해국을 본래부터 恭順하다고 칭찬해 온 것으로 인하여 그 措辭가 맞지 않게 되었음은 外邦 자체에서 中朝의 體式을 알지 못한 것으로 여기시어 또한 아직은 깊히 推究하지 않았고, 특별히 본부에서 해국의 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이 뒤부터는 일체의 表奏에 있어서의 辭意를 되도록 마음먹고 점검하여 다시는 어그러지는 일이 없게 하도록 유시했다.…”<sup>67)</sup>

조선에서는 공식적인 문서에 쉽게 사용하는 용어라 하더라도 청에서 금하는 용어라면 세세히 살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儲君과 國王嗣位 등은 청에서 일반적으로 금하는 용어였는데, 강희제 이후 저군을 실질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황제가 평소에 생각하였던 후계자를 禁封하여 두었다가 이를 황제 사후 개봉하여 황제위를 잇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sup>68)</sup> 또한, 황제권에서 사위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금기시하였다.

처음 주문이 작성된 것은 정조 1년 10월 26일이었으며, 12월 29일에 예부에 呈納되었지만, 황제가 잠시 보고 다시 옮겨 적어 오라는 聖旨로 인하여 다음 해 내각에서 繕清하였으며, 1월 21일 開印한 다음에야 비로소 啓奏하여, 2월 5일 예부에 旨下되었으며, 조선 사신들에 대한 頒賞文書는 2월 2일 계주하여 6일 旨下되어 10일에 상을 받았다. 回咨 15度を 수령한 것은 조선으로 돌아오는 11일이었다. 주문을 전달하고 약 40일 만에 답장을 받은 것이다. 문서전달 체계가 아주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주청사행은 청의 『奏文謄錄』을 구하여 위식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順治 7년의 奏文에도 ‘國君’이라고 한 ‘君’자가 있었고, 康熙 19년의 주문에도 ‘儲嗣’라고 한 ‘儲’자가 있었으니, ‘儲君’이라고 한 두 글자에 있어서는 이를 참조하여 변명할 수 있었다. ‘嗣位’의 경우에도 강희 19년의 주문과 雍正 6년의

67) 『同文彙考』原編, 卷41, 飭諭. 戊戌 禮部知會討逆奏文內字句違式咨. “…欽此本部細看 原奏內有儲君及國王嗣位等語 未爲合式 蓋此等語 在該本國自稱 原屬不禁 而敘以上告 則垂體制 且該國前此請立世孫及國王嗣爵 皆係請命天朝 遵奉勅旨 而行可見 儲君及嗣位之語 斷不宜列於奏牘 中皇帝因該國素稱恭順 其措詞不合目 由外邦未識中朝體式 亦姑弗探究 特諭本部咨知該國王 嗣後一切表奏辭意 務留心檢點 毋再違舛 爲此合咨 朝鮮國王 遵奉施行可也 云云 乾隆四十三年正月 日”.

68) 川勝 守, 1993 『清朝皇帝の儀禮と支配の構圖』 『明清時代の法と社會』汲古書院. 227-234면. 小野川秀美, 1986 『雍正帝と大義覺迷錄』 『雍正時代の研究』同朋舍. 321면.

주문에도 모두 ‘사위’라는 어구가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예부를 통하여 변명하고자 하였다. 주청사행의 변명을 접수한 회동관 提督과 예부시랑은 이미 황상의 勅諭가 있었기 때문에 陪臣이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정문을 접수하지 않았다. 예부시랑 王杰은 구체적으로 이미 내린 황상의 특지를 처음부터 국왕께 奉覽하지도 않고서 앞질러 고쳐 주기를 청하는 것은 분수를 벗어난 것이며, 굳이 參論한다면 장차 허다하게 좋지 못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위협조의 언급을 하였다.<sup>69)</sup>

주청사의 보고를 접한 정조는 시임대신들과 의논하여 謝恩兼陳奏使를 差出하되 가장 신임하던 蔡濟恭을 정사로, 鄭一祥을 부사로, 沈念祖를 서장관으로 삼았다. 체제공이 전달한 주문은 다음과 같다. 좀 길지만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가 위로는 皇帝의 은덕에 감사하고 아래로는 과오를 호소하는 일에 관하여 陳奏합니다. 本年 3월 20일에 進賀陪臣 河恩君 李瑬 등이 京師에서 돌아오게 되어 禮部의 해당 절목을 承准하건대, …(중략)… 신이 欽此하여 欽遵하면서 가만히 살펴보건대, …(중략)… 무릇 奏御하는 文字에 있어서는 따로 하나의 官司를 설치하여 臣僚들을 가리어 맡겨 놓고, 매양 使行 때에 당하면 기일에 앞서 撰述하도록 하였다가 陪臣들이 일제히 모여서 8, 9차례씩 查準하도록 하였으며, 焚香하고서 排表하고 郊外까지 나가서 使臣을 전송하곤 하여, 致敬하고 盡禮하기를 극진히 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은, 한결같이 成法을 감히 황폐하게 떨어뜨릴 수 없어서입니다. 어찌 감히 글을 보내는 즈음에 조금이라도 미진하게 함이 있어 스스로 그 違越하는 죄를 받기를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오직 우리 小邦은 壤地가 궁벽하고 외지며 見聞이 좁습니다. 건문이 좁으면 非禮인 것을 예로 여기게 되고 궁벽하고 외지면 不敬을 공경으로 여기게 되는 법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大朝에서 천지처럼 覆載해 주면서 善惡을 다같이 길러 주고, 山藪처럼 포용하여 瑕瑜를 다같이 갈무리 주지 않는다면, 이 小邦이 자연히 허물과 벌에 이르게 되어 반드시 행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이 소방의 역적들을 잡는 일이 비록 옛 규례에 의거하였으나 감히 주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말이 지루하고 煩瀆스러워서 바야흐로 僭擬하고 踰濫한 것이었음을 들어 진실로 두렵기만 했었는데, 바로 皇上께서 특별히 明勅을 내리어 盛京과 山東 등의 곳에 布諭하여 몰래 빠져 나온 자를 查詰하고 숨었다 들어온 자를 盤獲해 잡아 내심을 힘입어, 황상의 위엄이 한번 전파되자 변경의 관문이 엄숙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尺紙의 詔命으로 이 소방을 덮어 주고 가려 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69) 『正祖實錄』권5, 正祖 2年 3月 癸亥

북쪽을 바라보며 아홉 번이나 머리를 조아려도 이미 그 맺힌 감격의 사사 심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 올린 바 奏文에 있어서도 자신도 모르게 字句의 인습된 잘못을 스스로 體制의 격식에 어그러지는 것에 돌렸으니, 비록 어떠한 譴責을 받게 되더라도 감히 피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지금 우리 황상께서 遠方을 회유하는 덕으로 만물을 덮어 주는 仁을 펼치시어, 오직 죄를 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로 該部에 명하여, 비유하여 알도록 하고 誨諭하여 앞을 경계하게 하셨으니, 옛적부터 藩邦으로서 天朝의 이처럼 특이한 은전을 입게 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명이 내리던 날에 소방의 臣民들이 머리를 맞대고 두 손 모아 축하하며 더욱 황상의 恩賜가 상례의 격식에 월등함을 우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包荒하시는 큰 도량이 더욱 넓어질수록 황송하고 부끄러워지는 사사 심정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소방으로 하여금 만일에 中외의 儀式을 널리 고찰하게 되었고 文字의 體段을 환히 알게 되었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게 되었겠습니까? 오직 委巷의 攀踞인지라 밝은 조정의 進退하는 절차에 어그러지게 되고, 窮谷의 言辭인지라 公門의 達順하는 도리를 잃게 됨으로 인연하여, 마침내 스스로 격식에 어그러지는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이 이에 은덕을 음미하고 의리를 두렵게 여기면서 한가로이 편안히 있을 수 없기에, 삼가 감히 陪臣을 다시 差定하고 날짜를 잡아 行裝을 꾸려 길을 떠나보내어, 誠懼를 털어놓고 崇高함을 번득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天朝의 懇曲하게 감싸 주시는 은총을 송축하고 한편으로는 소방의 잘못하고 망령된 것을 한 죄를 追悔하고 있습니다. ...<sup>70)</sup>

물론 조공국의 입장에서 청에 구체적인 반박을 전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위 謝恩陳奏文에서 정조는 違式 어구를 사용한 것이 조선과 청의 인습 차이였음을 강조하고, 외교문서의 제작에서부터 전달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을 언급하였다. 실제 조선은 외교문서의 제작과정과 전달 과정에 세심하게 준비하였다. 진주사 체제공은 4월 15일 북경에 도착하여 당일로 예부에 表文, 咨文, 奏文을 전달하였다. 건륭제 후반에 정령이 엄격해져 어길 수 없는데 奏御文字에 말쑥이 생기면 큰 사건으로 비화되기 십상이었다. 주문사 하은군이 이미 위식문구에 대해 고찰하였듯이 실제 건륭제가 지적하였던 용어는 여러 차례 주문에 언급되었던 용어였지만, 옹정제이후 더욱 확립되기 시작한 절대 황제권의 정국과 건륭제시대 정치적 현황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용어였다. 조선에서 변무라는 외교적인 대응을 하기엔 적당하지 않은 시대적 상황이었기에 체제공은 북경에서 적극적인 변무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조선이 위식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이 의도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만

70) 『同文彙考』原編, 卷41, 飭諭 陳謝奏文違式奏.

죽해야 했다.<sup>71)</sup>

더욱이 예부에 전달된 주문에 있어 “老”를 두고 예부상서 謝鏞이 연로한 황제가 보기 싫어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할 정도로 외교문서에 사용되는 문자는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었다.<sup>72)</sup> 문자식에 대한 대응이 조선의 입장에서 대청관계를 원만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

사대문서의 정리 필요성은 조선후기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은 『동문회고』의 간행과 초편의 원편에 분류된 항목명으로 ‘表箋式’이 있음으로 확인된다. 기본적인 표전문의 형식에 대해서는 내각에서 규칙화한 것이 있으며, 시기별로 어떠한 계기로 누구를 대상으로 표전문을 올려야 한다는 개별적인 특기 사항을 하달하는 문서이며, 구체적인 표전문 작성의 목적, 접수 대상, 작성의 주체, 상달여부 등을 기재한 것이 表箋式이다. 또한, 수록된 문서가 1658년(효종 9)부터 1776년(영조 52)까지 18건이고, 다른 항목을 참조하도록 한 문서까지 합하면 94건이다. <부록>을 통해서 보면 118년 동안 94건의 표전식이 조선에 전달된 셈이다. 거의 매년 문서형식이 바뀌는 상황에서 사대문서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表箋式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사대문서의 일괄적인 정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선후기 다양한 외교관련 서적이 편찬되었으며, 그 집대성이 『同文集考』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사행은 전달하는 외교문서를 기준으로 사행명을 정하였다. 謝恩使는 謝恩表와 謝恩箋의 문서를 전달하였기 때문이며, 奏請使는 奏請하는 奏文을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사행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행도 가져오는 외교문서의 종류를 기준으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서를 지참하면 조사, 칙서를 지참하면 칙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만, 조선은 대명관계에서 명나라 사신을 “天使”, “詔使”, “明使” 등으로 불렀다. 이에 비하여 청 사신에 대해서는 “淸使”, “勅使”로 불렀다. 앞장에서 외교문서의 종류를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서와 칙서는 등급이 다른 문서이다. 조선후기 대청관계에서 조선에 전달된 조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 사신을 칙사로 내려 부르는 것은 반

71) 『정조실록』권5, 정조 2년 6월 기축

72) 『정조실록』권6, 정조 2년 7월 기축

청의식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sup>73)</sup> 이는 청나라 사신의 사행기록과 접대기록을 정리한 『詔勅謄錄』,<sup>74)</sup> 『弔勅謄錄』,<sup>75)</sup> 『京畿支勅定例』,<sup>76)</sup> 『海西支勅定例』,<sup>77)</sup> 『濟府支勅事例』,<sup>78)</sup> 『頒赦勅遠接使別人精』<sup>79)</sup> 등의 기록을 통하여 청나라 사신을 칙사로 일관되게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조선시대의 외교문서는 대상을 기준으로 事大文書와 交隣文書로, 事大文書는 발급주체에 따라 朝鮮文書와 中國文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존하는 외교문서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謄錄의 형식으로 남아 있거나, 실록 등 연대기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사대문서 중 조선문서는 황실을 대상으로 한 表文, 箋文, 狀文, 奏文, 啓文 등이 있으며, 아문을 대상으로 한 咨文, 呈文, 申文, 單子 등이 있다. 중국문서는 황제명의로 발급되는 制, 詔, 誥, 勅, 諭, 旨 등과 아문에서 발급하는 咨文, 牌文 등이 있다.

중국문서의 경우, 황제의 명령을 문자로 형식화하면 문서가 되며, 조선에 전달되거나 조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는 외교문서로 정의할 수 있다. 외교문서는 명령의 형식화였기 때문에 전근대사회에서 성문법의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하였으며, 개별 문서별로 특정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발급·전달되었다.

73) 김경록, 2005『조선후기 “同文彙考”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32, 214-217면.

74) 奎 12904-2. 1637年(仁祖 15)부터 1800年(正祖 24) 사이의 청사신의 接伴 및 청에 가는 使臣의 파견에 관한 제반절차와 청에서 온 詔勅이 수록된 謄錄이다.

75) 奎 12964. 숙종대 청나라의 弔問勅使를 迎接한 일들을 기록한 禮曹 稽制司의 謄錄이다.

76) 奎 17196. 京畿道내 4站에서 勅使를 접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칙사의 접대규식 등에 관한 規例를 京畿監營에서 마련한 定例이다.

77) 奎 16041. 黃海監營에서 각 읍의 勅需謄錄을 모아 1784년의 勅需總額을 기준으로 黃海道の 勅需와 接待節度를 定例한 등록이다.

78) 奎 9893. 義州府에서 청사신의 영접과 송별에 필요한 의주부 자체의 영송절차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79) 奎 1312. 8冊으로 된 청사신의 별인정 내역을 기록한 책으로 대상기간은 1643년(仁祖 21)~1786년(正祖 10)이다.



『典律通補』를 기준으로 외교문서를 구분하면 사대문서는 23종, 교린문서는 2종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문서의 명확한 구분이 아닌 수록된 내용에 따른 구분이었다. 表文의 경우, 賀表, 謝恩表, 進賀表, 陳慰表, 起居表, 告訃表 등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식과 대상을 기준으로 表文, 箋文, 狀文, 奏文, 啓文, 咨文, 呈文, 申文, 單子 등으로 구분하고 그 용도를 살펴보았다.

외교문서의 형식은 문서별 차이를 보였으며, 엄격한 字體, 字樣, 行格規式, 避諱文字, 文書紙 등 고려요소가 다양하여 예문관, 승문원, 사역원 등 여러 관아가 종합적으로 담당하였다. 이러한 문서형식의 엄격함은 시대별로 정치적 상황과 목적에 의해 외교적인 현안으로 대두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인 외교분쟁 뿐만 아니라 외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간 외교행위의 수단이었던 외교문서 자체가 새로운 외교분쟁으로 대두한 것이다. 강희제때 국경선이 확정된 이후 경제적인 분쟁이외에 별다른 국가단위의 분쟁이 없었던 조청관계의 전형적인 조공체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외교사안이였다. 본고에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외교문서는 생산과정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주도한 인물과 관련 인물이 있을 것이며, 작성의 법규가 있어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청대는 內閣과 軍機處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명의 행정문서체계를 계승하면서 점차 엄격한 문서체계를 형성하였다. 조선은 承文院과 藝文館을 중심으로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엄정한 封進절차를 거쳐 문서를 전달하였다. 賫去文書總數에 일정한 격식이 있었으며, 呈納과정이 사행의 큰 임무가 되었다. 즉, 사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문서전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달하는 문서에 의해 사행명이 결정되었다.

대명관계에서 대청관계로 전환되면서 조청관계는 외부적인 조공책봉체제와 내부적인 반청의식의 혼재로 인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내외정세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만 가지고 대외관계를 파악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대외관계사는 내치의 복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외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유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대외관계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국의 실리를 추구한다는 본질이 있지만, 조선시대를 살펴보면 반드시 정치적 측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대외관계에는 정치적 측면 이외에도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국가간의 義, 禮, 認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포함하여 정치, 제도, 경제, 문화, 사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외관계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대외관계사의 측면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조공체제에서 만국체제로 전환되는 근대화과정의 대외관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외교문서의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행작업으로 제도적인 파악이 있어야 하며, 외교문서의 명확한 해석 및 외교주체, 외교활동의 양상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연구는 시급한 연구과제이다. 그러나 어느 연구분야보다 많은 그 소요시간이 필요한 분야라는 어려움이 있다.

먼저 현존하는 외교문서의 정확한 소재 파악과 목록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각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있는 외교문서의 소재파악 및 조선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전달된 문서의 소재파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재파악을 통하여 체계적인 목록화작업이 이루어져 학술연구의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 목록화된 문서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시대적인 변화양상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때 형식과 용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서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문서전달의 단계별 절차, 외교문서에 주로 사용되는 이문에 대한 연구 및 용례정리, 사용인장과 종이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 공군사관학교 인문사회처 역사철학과 교수)

주제어 : 朝貢體制, 事大文書, 表文, 箋文, 奏文, 同文彙考

투고일(2005. 4. 30), 심사시작일(2005. 5. 20), 심사종료일(2005. 6. 2)

<부록> 朝鮮後期 朝淸間 往來한 表箋式

순번	연호	월일	문서명	수록항목
1	順治 15年(1658) 戊戌	1/	禮部知會停止皇后轉奏咨	表箋式
			頒皇后轉奏着依舊上諭	"
2	順治 18年(1661) 辛丑	7/17	探聖節日咨	"
		8/ 6	禮部回咨	"
3	康熙 32年(1693) 癸酉	2/ 6	禮部知會皇太子箋文穀面等並改秋香色咨	"
		5/18	回咨	"
4	康熙 44年(1705) 乙酉	2/20	禮部頒三節表箋式咨	"
			皇上前賀聖節表式	節使
			皇上前賀正朝表式	"
			皇上前賀冬至表式	"
			皇太子前賀正朝箋式	"
			皇太子前賀冬至箋式	"
		10/30	回咨	表箋式
5	康熙 47年(1708) 戊子		禮部知會停止廢太子榮箋及方物咨	進賀
6	康熙 61年(1722) 壬寅	11/11	禮部頒萬壽大慶表式咨	表箋式
			賀萬壽表式	文闕
	雍正 1年(1723) 癸卯	1/ 6	萬壽表因皇帝崩逝停止咨	表箋式
7	雍正 1年(1723) 癸卯	1/ 5	禮部頒賀皇帝登極皇太后尊號三節表式咨	進賀節使
			皇上前賀登極表式	進賀
			皇上前賀皇太后尊號表式	進賀
			皇上前賀三節表式	文闕
			皇上前賀三節表式	節使
			皇太后前賀三節表式	文闕
		2/ 9	報皇太后前例無進表咨	表箋式
		4/28	禮部回咨	"
8	雍正 6年(1728) 戊申	4/23	禮部知會聖節日值小建月咨	節使
		11/ 4	回咨	表箋式
9	雍正 13年(1735) 乙卯	11/ 2	前頒表式中犯諱當改換咨前頒表式中弘字曆字犯新皇帝諱故有此咨	"
		11/16	探聖節日子請頒表式咨	節使
	乾隆 元年(1736) 丙辰	2/ 9	禮部回咨	表箋式

10	雍正 13年(1735) 乙卯	?	禮部頒賀登極表式咨	文闕
			皇上前賀登極表式	進賀
		12/20	禮部頒三節表式咨	節使 進賀
			皇上前賀聖節表式	節使
			皇上前賀冬至表式	節使
			皇上前賀正朝表式	節使
			禮部頒皇太后尊號三節表式咨	表箋式
			皇上前賀皇太后尊號表式	進賀
			皇太后前賀尊號表式	文闕
			皇太后前賀三節表式	文闕
11	乾隆 元年(1736) 丙辰	3/ 6	報皇太后前例無進表咨	表箋式
		5/ 26	禮部回咨	"
	乾隆 3年(1738) 戊午	2/ 4	禮部頒皇太后尊號後表箋式咨	進賀
			皇上前賀皇太后尊號表式	"
			皇太后前賀尊號表式	文闕
			皇后前賀皇太后尊號箋式	文闕
			禮部頒皇后冊立後表箋式咨	進賀
			皇上前賀皇后冊立表式	"
			皇太后前賀皇后冊立表式	文闕
			皇后前賀冊立箋式	"
		7/25	報皇太后前例無進表咨	表箋式
			報皇后前例無進箋咨	"
11	乾隆 3年(1738) 戊午	11/ 4	禮部回皇太后無表咨	"
			禮部回皇后無箋咨	"
12	乾隆 9年(1744) 甲子	6/ 5	禮部頒皇太后皇后表箋式咨	表箋式
	乾隆 8年(1743) 癸亥	11/15	原奏	"
			皇太后前賀聖節表式	文闕
			皇太后前賀冬至表式	"
			皇太后前賀正朝表式	"
			皇后前賀千秋表式	"
			皇后前賀冬至箋式	"
			皇后前賀正朝箋式	"
	乾隆 9年(1744) 甲子	10/26	報皇太后皇后前例無進表箋咨	表箋式
		9/ 4	禮部頒皇太后皇后表箋字行式樣咨	"
		11/ 4	回禮部表箋字行式樣咨	"
		12/21	禮部回皇太后皇后前無進表箋咨	"
	乾隆 10年(1745) 乙丑	2/ 8	禮部回表箋字行式樣咨	

순번	연호	월일	문서명	수록항목
13	乾隆 14年(1749) 己巳	5/29	禮部頒皇太后尊號皇貴妃冊立後表箋式咨	進賀
			皇上前賀冊立尊號及討平表式	〃
			皇太后前賀冊立尊號及討平表式	文闕
			皇貴妃前賀冊立尊號討平及三節箋式	〃
		9/	報皇太后皇貴妃前例無進表箋咨	表箋式
14	乾隆 15年(1750) 庚午	9/	禮部頒皇太后尊號後表箋式咨	進賀
			皇上前賀皇太后尊號表式	〃
			皇太后前賀尊號表式	表箋式
			皇后前賀皇太后尊號箋式	〃
			禮部頒皇后冊立後表箋式咨	進賀
			皇上前賀皇后冊立表	〃
			皇太后前賀冊立皇后表式	表箋式
			皇后前賀冊立箋式	〃
	乾隆 16年(1751) 辛未	12/26	報皇太后前例無進表咨	〃
			報皇后前例無進箋咨	〃
		4/	禮部回皇太后無進表咨	〃
			禮部回皇后無進箋咨	〃
15	乾隆 16年(1751) 辛未	12/15	禮部頒皇太后尊號後表式咨	進賀
			皇上前賀皇太后尊號表式	〃
			皇太后前賀尊號表式	文闕
			皇后前賀皇太后尊號箋式	〃
	乾隆 17年(1752) 壬申	7/15	報皇太后前例無進表咨	表箋式
		11/16	禮部回咨	〃
16	乾隆 20年(1755) 乙亥	6/	禮部頒皇太后尊號後表式咨	進賀
			皇上前賀皇太后尊號表式	〃
		10/18	回咨	表箋式
17	乾隆 27年(1762) 壬午	1/ 2	禮部頒皇太后尊號後表式咨	進賀
			皇上前賀皇太后尊號表式	〃
			皇太后前賀尊號表式	文闕
		11/ 4	報皇太后前例無進表咨	表箋式
	乾隆 28年(1763) 癸未	?	禮部回咨	〃

순번	연호	월일	문서명	수록항목
18	乾隆 36年(1771) 辛卯	12/	禮部頒皇太后尊號後表式	進賀
			皇上前賀皇太后尊號表式	〃
			皇太后前賀尊號表式	文闕
	乾隆 37年(1772) 壬辰	11/ 2	報皇太后前例無進表咨	表箋式
	乾隆 38年(1773) 癸巳	2/	禮部回咨	〃
19	乾隆 41年(1776) 丙申	9/27	禮部頒皇太后尊號後表式咨	進賀
			皇上前賀皇太后尊號表式	〃
			皇太后前賀尊號表式	文闕
		11/ 3	報皇太后前例無進表咨	表箋式

\* 출전 : 『同文彙考』原編, 表箋式

## 참 고 문 헌

- 『事大文軌』, 『大清會典』, 『大清律例』, 『攷事新書』, 『皇明典禮志』, 『通文館志』  
 『典律通補』, 『中宗實錄』, 『東華錄』, 『荷谷朝天錄』, 『禮記』, 『燃藜室記述』, 『正祖  
 實錄』  
 『仁祖實錄』, 『詔勅謄錄』, 『弔勅謄錄』, 『京畿支勅定例』, 『海西支勅定例』, 『灣府  
 支勅事例』  
 『頒赦勅遠接使別人精』, 전해중, 1978 『동문회고』, 국사편찬위원회편.

-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혜안.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연구』, 혜안.  
 박원호, 2002 『明初 朝鮮關係史 研究』, 일조각.  
 최소자, 1987 『동서문화교류사연구: 명청시대 서학수용』, 삼영사.  
 崔承熙, 1989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한국실학연구회, 1998 『대중실학사연구』, 민음사.

- 高錫元, 1977 「麗末鮮初의 對明外交」 『白山學報』23.  
 權善弘, 1999 「조선과 중국의 책봉·조공관계」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釜山外大 國際關係研究叢書.  
 金在文, 1992, 「朝鮮王朝의 法典上的 古文書와 韓國法研究」, 『정신문화연구』~  
 15권1호.  
 金景福, 2004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117, 일지사.  
 金景福, 2005 「조선후기 “同文彙考”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32.  
 金京郁, 1997 『조선 光海君代의 西·北防禦政策에 대하여』 西江大 석사학위논문.  
 金九鎭, 1990 「朝鮮 前期 韓·中關係史의 試論」 『홍익사학』43.  
 金龍國, 1964 「壬辰倭亂 中 서울 收復戰과 防衛計劃(上), (下)」 『향토서울』22,  
 23.  
 金文植, 1994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 認識과 淸 文物 도입론」 『奎章

閣』17, 奎章閣.

金松姬, 1998 「조선초기 對明外交에 대한 一研究」 『史學研究』55・56, 韓國史學會.

金順子, 1999 「麗末鮮初 對元・對明關係 研究」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金廷美, 1996 「朝鮮後期 對淸貿易의 전개와 貿易收稅制의 시행」 『韓國史論』36, 서울大.

柳承宙, 1991 「朝鮮後期 朝・淸 貿易小考」 『국사관논총』30, 국사편찬위원회.

李敏雄, 2003 「朝・明 聯合艦隊의 形成과 露梁海戰 경과」 『歷史學報』178.

李相玉, 1969 「對明 學的交流에 대한 一考察」 『중국학보』10.

李存熙, 1978 「조선 前期의 對明書冊貿易-輸入面을 中心으로-」 『진단학보』44.

李泰鎮, 1994 「조선후기 對明義理論의 변천」 『아시아문화』제10호, 翰林大.

李鉉宗, 1973 「對明關係」 『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李鉉宗, 1982 「對明貿易」 『韓國史論』11, 국사편찬위원회.

朴南勳, 1982 「朝鮮初期의 對明貿易의 實際」 『關東史學』제1집, 관동대.

박원호, 1983 「明 「靖難의 役」에 대한 조선의 對應」 『아세아연구』26, 고려대.

孫承喆, 1988 「朝鮮朝 事大交隣政策의 成立과 그 性格」 『溪村閔丙河教授停年 紀念 史學論叢』.

송미령, 2003 「건륭초 구세력 배제와 군기처 정비」 『명청사연구』18.

安貞姬, 1997 「朝鮮初期의 事大論」 『歷史教育』64, 歷史教育研究會.

柳在春, 1993 「朝鮮後期 韓・日國書 研究」 『한일관계사연구』창간호.

이철성, 2000 『조선후기대청무역사연구』(한국사연구총서13), 국학자료원.

이훈, 1993 「조선후기 違式書契를 통해서 본 朝・日交渉의 특질」 『한일관계사 연구』창간호.

張舜順, 1993 「朝鮮後期 日本의 書契 違式實態와 朝鮮의 對應」 『한일관계사연구』창간호.

全海宗, 1966 「韓中 朝貢關係考」 『동양사학연구』1, 동양사학회.

全海宗, 1973 「15世紀 東亞情勢」 『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曹永祿, 1990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考」 『국사관논총』14, 국사편찬위원회.

趙煥來, 1992 「明軍의 出兵과 壬亂 戰局의 推移」 『한국사론』22, 국사편찬위원회.

- 曹佐鎬, 1960 「李朝 對明 貢女考」, 『海園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 池富一, 1997 「조선初의 對明 文化交流와 『性理大全』의 受容」, 『東洋學研究』3, 慶熙東洋學研究會.
- 崔韶子, 1995 「清과 朝鮮; 明・清交替期 동아시아의 國際 秩序에서」, 『梨花史學研究』22.
- 崔韶子, 2000 「임진왜란 전후 明과 朝鮮」,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四溟堂記念事業會.
- 沈喆俊, 1979 「金堉의 ‘朝京日錄」, 『韓國學』21,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 韓明基, 1992 「17세기 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15.
- 韓明基, 1997 「壬辰倭亂 시기 明軍 참전의 社會・文化的 영향」, 『軍史』35.
- 韓明基, 1997 「宣祖代 후반~仁祖代 초반 對明關係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許善道, 1982 「世宗朝 文化의 再認識-軍事・外交部門-」, 『世宗朝 文化의 再認識-報告論叢』8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季士家, 1984 「清代題奏制度沿革考釋」, 『歷史檔案』1984-3.
- 高橋公明, 1982 「外交文書‘書’‘咨’について」, 『年報中世史研究』7.
- 高橋公明, 1982 「外交儀禮よりみた室町時代の日鮮關係」, 『史學雜誌』91-8.
- 郭成康, 1998 「雍正密諭淺析-兼及軍機處設立的時間」, 『清史研究』1998-1.
- 宮崎市定, 1975 「清朝における國語問題の一面」, 『アジア史研究』3, 同朋舍.
- 小野川秀美, 1986 「雍正帝と大義覺迷錄」, 『雍正時代の研究』, 同朋舍.
- 小野和子, 1986 「清朝の思想統制をめぐる」, 『雍正時代の研究』, 同朋舍.
- 松浦章, 2002 『明清時代中國與朝鮮的交流: 朝鮮使節與着船』, 樂學書局.
- 李鵬年, 柳子揚, 陳鏘儀 編, 1990 『清代六部成語辭典』, 天津人民出版社.
- 臨時臺灣舊慣調查會, 1914, 『清國行政法』.
- 張我德, 楊若荷, 裴燕生 編著, 1996 『清代文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田代和生, 1983 『書き替のえられた國書』, 中央公論社.
- 田中健夫, 1990 「漢字文化權のなかの武家政權」, 『思想』976.
- 中村榮孝, 1965 「室町時代の日鮮交通と書契及び文引」, 『日鮮關係史の研究』上.
- 川勝 守, 1993 「清朝皇帝の儀禮と支配の構圖」, 『明清時代の法と社會』, 汲古書院.



&lt;Abstract&gt;

## A Kind and Character of Serving the Great or “*Sadae*(事大)” Document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Kim, Kyeong-lok \*

Traditonal diplomacy places importance on proper forms and etiquette. Especially when envoys were representing the ruler of Joseon, proper form and etiquette became even more important; a great deal of meaning was attached to each action and every word. When these envoys went in place of the Joseon king, they represented him via documents on which were written characters expressing *sadae* (such as *p'yo*(表), *ju*(奏), *jŏn*(箋), and *ja*(咨)); the envoys sent to Ch'ing were represented by documents with the words *joch'ik*(詔勅) and *jamun*(咨文). Afterwards, the way of scripting these diplomatic documents became codified and efforts to continuously organize them ensu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Joseon government felt an urgent need to take diplomatic documents it considered canon and systematically organize them, deal with problems that arose in documents used in Joseon-Ch'ing relations and rectify them under the cultural policy of Joseon which were part of a publishing project, take the softening stance of the Ch'ing towards Joseon into account while doing this, organize the records of how royal envoys dealt with the Ch'ing, and improve the process

---

\* Assistant Professor. Korea Air Force Academy.

of drafting documents expressing *sadae* so that errors could be corrected and not occur again.

Key Words : tribute/recognition system(朝貢體制), *sadae* documents(事大文書), *p'yomun*(表文), *jŏnmun*(箋文), *jumun*(奏文), *Tongmun hwigo*(同文彙考)